

수필을 중심으로 살핀 이상 문학 연구:

삶의충동과 죽음충동을 중심으로*

김 은 경**

I. 서론

이상은 짧은 생애 동안 수설집, 시집, 수필집을 각각 1권씩 묶을 만큼의 작품을 생산하였다. 그가 오랜 시기 동안 많은 작품 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적 시각을 적용하여 다채롭고 풍부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2010년으로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고도 다섯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문학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을 논할 때 반드시 주목하게 되는 그의 삶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이상문학에 대한 연구사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국부적임과 아울러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후대의 학자들이 사소설·수필로 범주화하여¹⁾ 엮은 작품집이 세 권에 불과하기에 양적

* 필자는 이 글을 2015년 7월 19일 한국현대문학연구 46집에 투고한 바 있으며, 2015년 9월 19일 韓國語文敎育研究會 第203回 全國 學術大會에서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본고는 일반 학술지에 게재되는 단일 논문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이를, 이와 관련하여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관악어문연구』에 투고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1) 이상문학의 성격상 이러한 범주화는 확정적이기보다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논의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한다.

인 측면에서 그의 문학세계가 **풍부하다**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논의범위를 확대하여 유기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논의대상을 부분적으로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에 대한 연구가 확대보다는 심화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궁구해 보자면,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그의 문학의 난해함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나아가서 현대문학의 전공분야가 시와 소설로 분명하게 구획되어 있는 학계의 구조적인 측면을 그와 같은 현상의 주변적인 정황으로서 고려해 볼 만하다. 결과적으로 개별 작품론들에서 종합적인 이상문학론으로의 지양을 이루는 것이 아직까지 이상문학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하겠다.²⁾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이상 문학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의 논의는, 이상의 소설 및 시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필자의 기존 논문 2편을 전제로 하여 전개될 것이다.³⁾ 본고와 필자가 기존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 간에는 겹쳐지는 부분과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즉, 기존논문과 본고 간의 교집합들에 토대하여 그 너머의 논의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궁구함으로써 이상 수필 문학만의 개성을 밝힘과 아울러 이상문학세계를 종합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 2) 다음은 이상문학 관련 연구 자료들 가운데 주요 단행본을 정리한 것이다. 권영민, 『이상 텍스트 연구: 이상을 다시 묻다』, 서울: 웅진씽크빅, 2009; 김윤식, 『李箱 研究』, 서울: 문학사상사, 1988; _____, 『李箱 小說 研究』, 서울: 문학과비평사, 1988; _____, 『이상문학 텍스트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_____, 『기하학을 위해 죽은 이상의 글쓰기론』, 서울: 역락, 2010; 김주현, 『이상 소설 연구』, 서울: 소명, 1999; _____, 『실험과 해체』, 과주: 지식산업사, 2014; 박현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사학』, 서울: 소명출판, 2003;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 역사시대의 종말과 제4세대 문명의 꿈』, 서울: 현암사, 2007; _____, 『이상 문학 연구: 불과 홍수의 달』, 서울: 지식과교양, 2013; 신범순 외, 『이상(李箱):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서울: 역락, 2006.
- 3) 김은경, 「이상 소설 연구 - ‘천재’와 ‘탕아’의 형상을 중심으로」, 『比較文學』 54, 韓國比較文學會, 2011. 6; 김은경, 「李箱 詩에 나타난 主體 형상의 기호학적 분석 - 잉여/결여(▽△) 및 발산/수렴(凹凸)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6, 한국현대문학회, 2012. 4.

이를 위해 본고는 이상문학을 추동하는 주요 인자가 삶의충동과 죽음충동이라는 관점을 견지할 것이다. 양자는 그 각각의 방식으로 이상문학을 낳는 원질로서 자리한다고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본고는 당시로서는 난치의 병인 결핵을 앓은 이상이 ‘시한부’의 생애를 살았다는 점에 주목한다.⁴⁾ 이 글의 논의는 그와 같이 죽음이 전제된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티항하는 삶의충동과 죽음충동이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문학을 낳고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⁵⁾ 특별히, 이상의 수필집에 수록된 상당수의 작품들을 통해,

4) 이상이 시한부의 생애를 살았다는 점은 이상이 하이데거가 이르느바 ‘죽음에로의 선구(先驅, Vorlaufen)’를 통해 본래적 실존에로의 비약이 상존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은 죽음이 자신들에게는 아직은 먼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죽음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마련이다. 이는 잡담과 호기심, 애매성으로 점철된 비본래적 실존이라 할 수 있겠는데, 죽음에로의 선구란 죽음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에 용기 있게 직면하면서 일상적인 가능성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래적인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하이데거가 규정한 죽음의 의미를 시한부의 생애를 살아가는 이상의 삶에 대입해 보기로 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죽음이란, “가장 고유하고, 다른 가능성들에 의해서 능가될 수 없고, 가장 확실하며 무규정적인 가능성(die eigenste, unüberholbare, gewiße, unbestimmte Möglichkeit)”이다. 여기에서 죽음을 한정하는 마지막의 ‘무규정적(unbestimmte)’은 죽음이 언제든지 침입해 올 수 있기에, 죽음의 시간은 규정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럼에도 죽음이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라는 사실은 죽음이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는 ‘항상 임박해 있는(bevorstehen) 가능성’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신의 삶이 시한부임을 자각한 이상에게 있어서 죽음을 정의하는 이 마지막의 의미는 보다 절박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본고는 이상의 작품들을 통해, 그가 예정된 죽음으로부터 회피하거나, 그에 정면 대응하고 있음을 살필 것이다. Martin, Heidegger,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1998; 박찬국,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금길〉」,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고전강연)』, NAVER(2015. 7. 25), pp. 16-25.

5) 프로이트는 충동(Trieb, drive)을 본능(instinct, instinct)과 구분되는 정신분석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이를 본능으로 번역할 경우, 그것의 심리적 의미가 완화되고 생물학적 개념으로 오해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프로이트는 충동 이론론을 개진하는데, 그것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 성충동(리비도)과 자아충동(자아보존충동), ② 성충동(리비도)와 자아보존충동. 이때는 나르시시즘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충동을 다시 자아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로 구분한다. ③ 삶의 충동(리비도, 에로스)과 죽음의 충동(타나토스). 이때 삶의 충동은 성충동과 자아보존충동 모두를 포함한다. 프로이트는 「쾌락원리를 넘어서」에서 죽음의 충동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

그가 ‘살아간다’기보다는 ‘죽어간다’는 인식하에 그의 삶에 직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는 이와 같은 가설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이룬다 할 수 있다.

이상문학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처럼 상반된 충동에 주목하는 본고의 논의가 유사한 시각을 가진 기존의 논문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이상의 문학을 통해 죽음충동뿐만 아니라 삶의충동에도 주목하여 두 개의 충동이 길항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두 개의 충동은 모두 ‘시한부’의 삶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하여 유발되는바, 이처럼 동일한 원점에서 출발하는 두 개의 충동은 그의 문학에서 상호 교차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전체적인 논의를 풀어갈 것이다. 둘째, 이 글은 삶의충동이 단선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른바 축적적 의미 그대로의 삶의충동과 결국 죽음충동에 수렴하는 삶의충동을 이상문학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를 통해 그의 충동 이론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찬부는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을 다음처럼 정리하고 있다. ① 비유기체, 무생물의 상태를 복원하려는 죽음 본능은 ‘보수적’ 성격을 띤다. ② 이 유기체 내부의 죽음 본능이 외부적 대상에 투사되어 밖으로 향하는 것이 공격/파괴 본능이다. ③ 그 공격파괴 본능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 외부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다시 내향화될 때 극히 “불건강한” 자기 파괴 현상이 벌어진다. ④ 따라서 그 “추하고 위험스러운 충동들”을 외부적으로 발현시키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우며,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연에 더 가까운” 행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죽음 충동의 보수적 성격과 관련하여 프로이트는 “생명체의 목표는 죽음이다”라는 역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글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가운데 시한부의 생애를 살아 간 이 상에게 있어서 죽음은 먼 미래에 도래할 무규정적인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항상 압박해 있는(bevorstehen) 가능성’으로서 분명하게 잠재하여 있었을 것이기에 이러한 역설이 그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으로서 노정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전개될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문학과 삶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충동이 자기보존충동과 더불어 삶의 충동을 이루면서 공격적이기보다는 내향화된 죽음충동과 길항하고 있음을 논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본고의 이와 같은 입장은 이상문학에 나타난 죽음충동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는 기존 논의와 차별화될 것이다. Sigmund Freud, 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서울: 열린책들, 1997;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국학자료원(NAVER 지식백과에서 2015년 8월 26일에 참고함); 박찬부, 「프로이트 〈꿈의 해석〉,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고전강연)』, NAVER(2015. 7. 18), pp. 19-22.

바, 자연인 ‘김해경(金海卿)’과 작가·주인공 ‘이상(李箱)’이 시한부의 생애에 직면하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 이를 증명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삶의충동 및 죽음충동이 이상문학의 장르 범주들과 상관성을 보인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대별하여, 삶의충동과 소설(小說) 간, 그리고 죽음충동과 시(詩) 간에 단선적이지는 않지만 상관적인 경향성이 존재함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본고 논의는 이상의 수필을 일차적인 논의대상으로 하되, 종합적인 소설론 및 시론의 성격을 띤 필자가 발표한 기존 논문과의 관련성상에서 이루어지겠는바, 궁극적으로 시, 소설, 수필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이상문학론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⁶⁾

II. 삶의 충동 및 죽음 충동과 이질적인 자아상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이상의 문학세계 내에 자리하는 이질적인 자아상들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이상 소설에 대한 논문을 통해 천재 및 탕아의 자아형상을 논한 바 있으며, 이상 시에 대한 논문을 통해 형이상적(▽적) 자아상과 형이하적(△적) 자아상이 선택적으로 발현됨을 살핀 바 있다.⁷⁾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자아형상의 쌍들 내에서 전자의 자아형상들(천재, 형이상적자아상)이 죽음충동과, 그리고 후자의 자아형상들(탕아, 형이하적 자아상)이 삶의충동과 연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논의하겠다.

이상 소설론에서 천재와 탕아의 형상을 범주 짓고 개념화하는 일차적 근

6) 이 글의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상, 이승훈 엮음, 『詩-李箱문학전집 1』, 서울: 문학사상사, 1989; 이상, 김윤식 엮음, 『小說-李箱문학전집 2』, 서울: 문학사상사, 1991; 이상, 김윤식 엮음, 『隨筆-李箱문학전집 3』, 서울: 문학사상사, 1998. 이하 인용문의 출처는 내각주 방식으로 밝히되, (전집권수, 인용면수)와 같이 한다. 예를 들면, 수필 인용은 (3, 인용면수)로 한다.

7) 김은경, 「이상 소설 연구-‘천재’와 ‘탕아’의 형상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_____, 「李箱 詩에 나타난 主體 형상의 기호학적 분석 - 잉여/결여(▽△) 및 발산/수렴(凹凸)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거가 된 것은 연속과 단절의 의미소였다. 소설 관련 논문에서, 천재는 과거-현재-미래의 연속 내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해 고심하는 자아형상인 반면, 탕아는 육체성을 매개로 여성인물들과 단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단절의 역사성을 담지하는 자아형상인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자아형상들은 장르적으로는 이질적인 시 텍스트들을 통해 살핀 ▽적 자아상 및 △적 자아상과 차례로 친연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형상들을 본장의 두 절의 제목이 나타내 보이듯이, 삶의 충동 및 죽음충동과 결부하여 볼 때, 역설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다. 이른바 삶의 충동과 탕아의 형상간의 친연성, 죽음충동과 천재의 형상간의 친연성을 논증하게 될 경우, 삶의 충동에 단절의 의미소가, 죽음충동에 연속의 의미소가 개입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서론에서 밝힌 이 글의 독자적인 관점 세 가지 가운데, 첫째, 둘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두 개의 충동과 자아상들 간의 친연성 및 거기에 서 존재하는 역설에 대해 상론하겠다.

1. 삶의 충동: 탕아의 형상 및 △적 자아상

본 절의 논의를 위해 Ⅲ장에서 논의할 두 개의 삶의 충동에 대해 미리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수필을 전체적으로 살필 때, 삶의 충동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짐을 살필 수 있다. 우선, 김해경의 자연인으로서의 목소리를 엿볼 수 있는 몇 편의 수필들 및私信들 등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충동이란 축어적 의미 그대로의 삶의 충동으로서 거기에서 삶에 대한 인간적 절박함이 묻어남을 살필 수 있다. 다른 한편, 회피로써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 글은 이를 이상의 작품들에서 작가-주인공의 형상으로서 등장하곤 하는 이상과 유관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삶의 충동이란 여성편력으로서 대변되는 탕진하는 삶, 이른바 삶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삶과 유관하다 할 수 있기에⁸⁾ 이는 궁극적으로 죽음충동에 수렴하는 것이

8) 김은경, 「이상 소설 연구 - ‘천재’와 ‘탕아’의 형상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후자의 삶의충동이 소설 및 시를 통해 살핀 바 있는 탕아의 형상 및 △적 자아상과 친연성을 가짐을 이상 수필들을 통해 논증할 것이다.

우선, 이상은 수필을 통해서도, 성욕을 앞세운 여성편력적인 삶의 방식이 삶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죽음에 수렴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그의 수필 「血書三態」를 이루는 다섯 편의 짧은 글들 가운데,⁹⁾ 〈하이드 씨〉 편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다.

소하! 운명에 대하여 ‘매저키스트’들에게 성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욕! 성욕은 그럼 농담입니까. 성욕에게 정말 ‘스토리’가 있습니까. 태고에는 정말 인류가 장수 하였겠습니까.

소하! 나에게는 내가 예술의 길을 걷는데 소위 後見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찌기 사디즘을 알았을 적에 벌써 성욕을 병발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신성한 파편이요 對他에 실례적인 자존심을 억제할만한 아무런 후견인의 감시가 전연 없었습니다. (3, 23)

인용문은 성욕이 마조히즘 및 사디즘과 관련을 맺는다는 지성적인 인식을 전제한 가운데 전개된 것으로서, 주목되는 바는 마조히즘을 운명과도 관련 짓고 있다는 점이다.¹⁰⁾ 여기에서 운명-마조히즘-성욕 간의 관계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스토리’가 없는 성욕이란, 성욕에 기초하여 여성인물들과 단속적인 관계를 맺는 여성편력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와 같은 성욕이란 운명에 대한 마조히즘에 다름 아닌 것이라는 문맥이 위의 인용문에 내재하여 있다 할 수 있겠다. 일부일처제가 문명의 산물이라고 볼 때, 원초적인 고대인의 성욕이란 ‘스토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바, 그럼에도 그들이 장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은 고대인들의 그와 같은 성욕이 그들에게는 마조히즘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인용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기초로 성욕과 그것의 탕진으로서

9) 「血書三態」는 〈오스카 와일드〉, 〈官能偽造〉, 〈하이드 씨〉, 〈惡靈의 感傷〉, 〈血書其三〉의 5편의 글들로 이루어진다.

10)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 결과, 인용문의 “사디즘”을 “세잔이즘”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 글은 이와 관련한 논란을 논외로 하여 전개된다.

의 삶이란, 삶의 엔트로피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수필 「슬픈 이야기—어떤 두 週日동안—」, 「幸福」은 여인과의 동반자살 시도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수필을 통해 당아의 형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여성인물 내지 여성편력이 화자의 삶의충동과 보다 친연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슬픈 이야기」에서는 여인과의 두 주일간의 여행기간 동안 자살을 결행하지만, 결국 화자가 자살을 포기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인이 둘의 자살에 대해 “따불 플라토닉 쉬사이드”라는 의미부여를 하자, 화자는 이를 굳이 “두箇의 싱글 쉬사이드”(3, 65)로 교정함으로써, 화자의 죽음충동이 ‘情死’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 결말부 또한 화자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여인의 대사를 통해 여인이 화자의 자살에 대해 영문을 모른 채 동참하고 있는 것임을 드러내 보인다. 결국 여기에서의 죽음충동이 순전히 화자만의 것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주일 간의 여행이 끝나는 날, 화자는 결국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果然 지금 나로서는 혼자 내 한숨을 끊을 만한 自信이 없”(3, 68)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이른다.¹¹⁾

「幸福」 또한 여인과의 동반자살에 실패한 정황을 소재로 한 글인데, 화자인 나는 「슬픈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인을 통해 삶의충동이 본능적으로 유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함께 물속에 몸을 던졌을 때, 仙이가 나의 이름을 부르자, 죽음을 결심하던 그 이름을 부정함으로써, 삶의충동을 앞세워 仙이를 구하고 살아나게 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자살미수사건 이후의 내 삶의 양태 및 의미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 물속에서 살아난 나는 결국 仙이와 결혼하는데, 이에 대해 화자는 “네 一生은 이미 내가 復活하던 瞬間부터 祭壇 위에 올려 놓여 있는 것”(3, 73)이라는 의미부여를 한다. 전후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선이

11) [인8] 어데까지든지 荒涼한 人外境입니다. 나는 얄으막한 女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그 薔薇처럼 생긴 귀에다 대이고 부드러운 發音을 하였습니다. 집이 갑시다. 「싫어요—저는 오늘 아주 나왔세요」 닷새만 더 참아요 「참지요—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죽어야 되나요」 「그러므로, 죽은세음 치고 그 靈魂을 제게 빌려 주실 수는 없나요」 안됩니다. 「언제든지 죽어드리겠다는 抵當을 붙여도」 네. (3, 68)

와 결혼한 이후, 선이의 정숙하지 못함을 들어 복수하는 차원에서 行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그와 같은 복수가 나가 殞命(落命)하는 순간에 畢하게 되리라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 이른바 나의 一生을 올려놓은 제단이란, 죽음의 순간에야 완성될 상태에 대한 복수, 즉 선이의 부정함을 行刑하는 삶인 것이다. 수필의 이와 같은 전개과정을 통해 죽음충동 → 삶의 충동 → 죽음을 전제한 삶이라는 변화의 과정을 드러내는데, 마지막의 경우를 통해 죽음을 전제한 삶이 이상의 삶의충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탕아의 형상을 파괴적인 삶의충동과 결부하여 보는 본고의 접근은 죽음충동과 인접하여 일어나는 성욕을 다룬 작품들을 통해서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된다. 「어리석은 夕飯」, 「猥의 記(作品 第二番)」는 삶의충동과 성욕 간의 관계를 잘 드러내 보이는 작품들이다. 「어리석은 夕飯」¹²⁾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면모는 죽음충동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실존의식에 뒤이어 성욕이 발산된다는 점이다. 화자인 나는 廣大無邊한 단일함 가운데에서 恐怖, 不安과 같은 실존의식을 갖는다.¹³⁾ 특별히 광대한 단일함을 대변한다 할 수 있는, “음響이 없”는 “白晝”는 “죽음보다도 더욱 寂寞”(3, 129)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들, 녹색, 백주 등에서 유발되는 실존 의식이란 죽음충동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이러한 실존의식에

12) 이 수필에서 화자인 ‘나’는 새벽녘 → 일곱시 → (늦은 아침밥상을 받은) 아홉시 반의 시간대별로 들을 배회하면서 갖는 감회와, 정경 등을 술화하고 있다.

13) 세부적으로 볼 때, “**태양도 없는 어두운 공포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어제밤 以來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들, “**廣大無邊한 際涯도 없는 洗鍊되지 못한 永遠의 綠色**”(3, 128)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실존의식을 갖는다. / 「어리석은 夕飯」 이외 「倦怠」, 「첫 번째 放浪」, 「夜色」 등의 수필에서 ‘나’로 등장하는 화자들은 천지의 광대한 단일함, 무변화 상태에서 공포, 불안, 권태, 자살충동 등의 실존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는 이를 ‘천문·지구적 실존’으로서 4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4) 필자는 기존 논문에서 鳥瞰圖 「詩第四號」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변수삶, 상수죽음의 상관관계가 맺어짐을 논의한 바 있다. 김은경, 「李箱 詩에 나타난 主體 형상의 기호학적 분석 - 잉여/결여(▽△) 및 발산/수렴(凹凸)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p. 223.

휩싸인데 이어 화자는 강렬한 성욕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광대한 단 일함에서 비롯하는 죽음충동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¹⁵⁾ 본고는 이를 같은 수필에서 화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서로 어긋나는 生理狀態와 心理狀態”¹⁶⁾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성욕은 실존의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주체의 몸을 통해 생리적으로 발현되는 삶의충동인 것이다. 실제로, 성욕을 발산하는 암개와 그 암개를 만나는 수개, 촌처녀가 가질 수 있는 성욕에 대한 생각으로 화자의 강렬한 성욕을 대치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강한 삶의충동이 드러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는 △적인 자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겠다.

「獵의 記(作品 第二番)」에서도 죽음충동에 뒤이어 성욕이 발산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은 네 개의 작은 마디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의 〈記四〉부분을 통해 이를 살필 수 있다.¹⁷⁾

정수리 언저리에서 개가 짖었다 不誠實한 地球를 두드리는 소리

나는 되도록 나의 五官을 取消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心理學을 포기한 나는 기꺼이—나는 種族의 繁殖을 위해 이 나머지 細胞를 써버리고 싶다

바람 사나운 밤마다 나는 차차로 한 묶음의 턱수염 같이 되어버린다

한줄기 길이 산을 뚫고 있다

나는 불 꺼진 彈丸처럼 그 길을 탄다

봄이 나를 뺏어낸다 나는 차거운 壓力을 느낀다

듣자 하니—아이들은 나무밑에 모여서 겨울을 말해버린다

-
- 15) 화자는 갑자기 발산하는 강렬한 성욕을 “大地의 性慾에 대한 缺乏—이 嚴重하게 封鎖된 禁制의 大地에 不倫의 구멍을 뚫지 않으면 안된다.”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만일 이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宇宙는 그냥 그대로 暗黒의 밑바닥에서 悶絕하여 버릴 것이다.”(3, 129)와 같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바, 성욕의 발산은 이에 대한 반작용인 것으로 읽힌다.
- 16) [인용] 이렇게 오고가는 方向이 서로 어긋나는 生理狀態와 心理狀態는 도대체 어찌지는 셈일까. 心理狀態가 무엇이든 事事件件마다 生理狀態에 대하여 몹시 怒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라면 그 反對일 것이다. (3, 126)
- 17) 필자는 이 작품이 모더니스트 이상의 ‘반-지성’을 향한 경사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고 있다. 〈記一〉〈記二〉〈記三〉은 이상의 글쓰기가 지성뿐만 아니라, ‘반-지성’을 매체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4장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화살처럼 빠른 것을 이 길에 태우고 나도 나의 不幸을 말해버릴까 한다
 한 줄기 길에 못이 서너개—땅을 파면 나긋나긋한 풀의 準備—봄은 갈갈이 찢기고
 만다 (3, 320)

인용문은 〈記四〉의 마지막 부분이자 이 작품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한데, “개”, “地球를 두드리는 소리”¹⁸⁾ 등은 성 행위를 통해 성욕을 발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용문은 이러한 성 행위를 “心理學을 포기한 나”가 행하는 것으로서 술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記四〉의 인용부분 이전의 내용을 고려하여 새겨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① 獐과 나의 동일시 → ② 한 장 밖에 남아 있지 않은 皮膚에 筋을 그려 넣으면서 “骸骨” “墓地” “영원한 景致”에 대해 생각하기 → ③ 여자의 등장 → ④ “帽子”에게 “나의 思想을 掩護”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데드마스크”에 대해 생각 → ⑤ 하늘을 “나의 쓰러져 客死할 廣場”으로 생각함. 이러한 전개과정에서 ①, ③을 제외한 ②, ④, ⑤를 통해 죽음충동을 엿볼 수 있다. 화자의 심리학이란 이를 의미한다 하겠는데, 인용문에서의 성 행위는 ①, ③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죽음충동을 내포한 ②, ④, ⑤의 심리학에 대한 반작용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 심리학을 포기한 성 행위란, 상대와의 진정한 마음의 교류 없이 행해지는 육체적인 탕진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인 “봄은 갈갈이 찢기고 만다”는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어리석은 夕飯」, 「獐의 記(作品 第二番)」을 통해 죽음충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현되는 대해 살펴보았다. 이 두 작품은 심리적으로는 죽음을 생각하지만, 육체는 성욕을 통해 생리적으로 삶의충동을 발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⁹⁾ 그러나 그 삶의충동 또한 육체적 탕진의 의미를 갖는

18) 이상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개’는 성행위와 관련을 맺는 보조관념으로 자주 등장한다. 또한 이상이 성 행위를 지구에 구멍을 뚫는 것으로써 자주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 이와 관련하여 수필집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 賣春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는 다음의 두 작품이 주목된다. 「最低樂園」(3, 185); 「哀夜—나는 한 賣春婦를 생각한 다—」(3, 305)/「最低樂園」에서는 나가 유곽을 찾아가 매음행위를 하기까지의 과정과 심리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는데, 네 개의 소절들 가운데 대체로 1과

것이기에 궁극적으로는 죽음충동에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²⁰⁾ 이처럼 이상의 수필 작품은 삶의충동이 죽음충동과 상호 맞물리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탕아의 형상 및 △적 자아상을 결정짓는 여성편력과 성욕을 통해 발산되는, 삶의충동이 단절의 의미를 갖는다는 역설은 이와 같은 문맥에서 생각해 볼 때 설득력을 갖는다 하겠다.

2. 죽음 충동: 천재의 형상 및 ▽적 자아상

1절의 논의를 통해 삶의충동이 탕아의 형상 및 △적 자아상과 연관함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와 대칭점을 이루는 죽음충동이 천재의 형상 및 ▽적 자아상과 관련을 맺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필자는 소설에 대한 논문을 통해, 이미 죽음충동이 천재의 형상과 연관함을 밝힌 바 있다. 기존 논문에서 소설 「童叢」을 통해, ‘정경 속의 나’가 여성편력을 통해 단절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탕아의 형상인 것과 달리 ‘유구한 세월 속의 나’는 연속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천재의 형상임을 밝힌 가운데, ‘유구한 세월 속의 나’를 괴롭히는 자살충동을 살핀 바 있다.²¹⁾ 또한 이상 시에 대한 논문을 통해서도, 죽음충동과 삶의충동이 충돌함으로써 그 소산으로서 글쓰기가 이루어짐을 살핀 바 있는데, 이 또한 천재의 형상과 죽음충동 간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²²⁾

이상 수필이 보여주는 죽음충동들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바는 그것이 ‘가

3, 2와 4가 대구를 이루면서 전개된다. 「哀夜—나는 한 賣春婦를 생각한다—」에서는 매춘부를 상대로 매음하는 내용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20) 이와 관련하여 죽음충동의 죽음은 상징적인 맥락에서의 삶의 끝 또는 그 너머를 의미한다는 라캉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겠다. 라캉에 따르면, 사회적인 금기를 위반한 욕망의 주체는 강력한 법의 처벌에 직면하게 되나, 더 이상 관습과 상식의 안전한 영역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의 보호막 밖으로 추방된다. 그것은 쾌락원칙에 기초한 삶의 종언을 의미한다. 김용수, 『자크 라캉: 살림지식총서 340』, 2008, (주)살림출판사(NAVER 지식백과에서 2015년 8월 26일에 참고함).

21) 김은경, 「이상 소설 연구 - ‘천재’와 ‘탕아’의 형상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22) 김은경, 「李箱 詩에 나타난 主體 형상의 기호학적 분석 - 잉여/결여(▽△) 및 발산/수렴(凹凸)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족'에 대한 생각과 연접적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가족이란 세대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바, 이로부터 죽음충동이 인접적으로 유발되고 있다는 점 또한 역설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수필집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 가족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편은 다수이다. 여러 편의 「私信」들과 「슬픈 이야기」, 「山村餘情」, 「첫 번째 放浪」, 「失樂園」 내의 〈肉親의 章〉, 「구두」, 「공포의 城砦」 등의 글편들에서 이상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바, 공통적으로 가난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세부에 있어서는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私信」들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생각은 강력한 초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할 수 있다. 장자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기꺼이 떠안아야만 한다는 책임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여러 편의 수필들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생각은 가족부양의 의무를 삶의 족쇄로서 여기고, 떠넘기고 싶은 짐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²³⁾ 그 가운데 「슬픈 이야기」, 「山村餘情」을 통해 가족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연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여인과 동반자살을 계획하지만 미수에 그치고 만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슬픈 이야기」는 이상이 그의 가족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작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자살하기 위해 여인과 다시 찾은 추억의 장소에서 “물 속”으로 주변의 풍경과 밤하늘을 비추어본다. 갑자기 “물 속”으로 비추어보는 하늘에서 별들이 사라지자,²⁵⁾ 곧이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젖 떨어져서 나갔다가 23년 만에 다시 모여 살게 된 가족(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념을 술회하는데, 그 단락이 “무슨

23) 「첫 번째 放浪」에서는 가족을 저주, 독소로서 여기고 있으며, 「失樂園」내의 〈肉親의 章〉은 육친에 대한 채무의식과 부담감이 강박적으로 나를 압도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구두」에서는 가족 부양을 위해 囹圄된 식물적 삶을 한탄하고 있다. 한편, 「공포의 城砦」는 가족과 민족을 미워하는 그가 손도끼로 가족을 모두 살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다 하겠다.

24) 김윤식은 「슬픈 이야기」에 대한 〈해제〉를 통해 이를 밝히고 있다. 김윤식 편, 〈해제〉, 앞의 책, (3, 69).

25)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날씨가 흐려져 비가 내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이 있으려나—大闕에 초상이 났나보다”(3, 63)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음에 주목해 보자. 이 부분을 「공포의 城砦」의 경우와 엮어서 생각해 볼 때, 화자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민족적 차원의 역사성과도 접맥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살여행을 하고 있는 화자가 가족과 민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음을 엿보이고 있는 이 단락을 통해 죽음충동에 사로잡힌 화자가 세대와 민족의 연속성 내에 스스로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천재의 형상에 근접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하겠다.

「山村餘情」²⁶⁾에서는 첫 번째 소절인 〈1〉과 마지막 소절인 〈6〉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족에 대한 생각과 자살충동이 연접적으로 나타난다. 모두 병든 몸으로 가난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나에게 “근심”을 지우는 상황을 제시한 가운데, 직접적으로 죽음충동을 언명하고 있다. 특히, 〈6〉에서는 꿈속에서 “세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굶은 家族을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이어서 “나를 除한 世上보다” 큰 “근심”을 토로한 후, 동무에게 쓴 편지에 “自信의 訃告도 同封하여”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예수를 세 번 부정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있는 점,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감리고 신자인 “메소이스트”를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가족에 대한 책임과 기독교 윤리의식 간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²⁷⁾ 따라서 가족에 대한 과중한 책임감을 토로한 데 이어 발산되는 죽음충동은 기독교 윤리의식이 대변하는

26) 여섯 개의 소절로 된 수필로서, 요양하기 위해 머문 황해도 성천의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밤부터 다음날 밤까지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하루의 일과를 담고 있다.

27) [인용] 잠—聖經을 採字하다가 엇질러 버린 印刷職工이 아무렇게나 주워담은 支離滅裂한 活字의 꿈 나도 갈갈이 찢어진 使徒가 되어서 세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굶은 家族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 근심이 나를 除한 世上보다 큼니다. 내가 閨門을 열면 廢墟가 된 이 肉身으로 근심의 潮水가 스며들어 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메소이스트’ 瓶마개를 아직 뽑지는 않습니다. 근심은 나를 싸고 돌며 그리는 동안에 이 肉身은 風磨雨洗로 저절로 다 말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 밤의 슬픈 空氣를 原稿紙 위에 깔고 蒼白한 동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속에는 自信의 訃告도 同封하여 있습니다. (3, 112) / 이 글에서는 “‘메소이스트’ 瓶마개를 아직 뽑지는 않”았다가 이상이 가족과 가족윤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으로 본다. 병마개를 아직 뽑지 않았다는 유사한 표현은 「女像」이라는 시 형식의 글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 표현은 처녀의 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슈퍼에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는 「山村餘情」에서 화자가 두 차례에 걸쳐 드러내 보이는 죽음충동이 가족과 세대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에 접맥되는 아니라, 슈퍼에고에 기초한 중압감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肉親의 章〉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小説을 써야 서훈도 안”되기에 돈을 벌 줄 모르는 나에게 “墓穴에 계신 白骨까지가 내게 무엇인가를 强請”(3, 190) 하는 것으로 여기지는 상황의 중압감이 죽음충동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첫 번째 放浪」, 「얼마 안되는 辨解」, 「무제(1)」, 「面鏡」 등의 작품에서는 죽음충동과 문학에의 열정 간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죽음충동이 ∇적 자아상과 유관함을 밝힐 수 있다. 이들 작품을 통해서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할 있다. 첫째는, 이들 작품에서 삶의 충동과 죽음충동이 공존하는 가운데 문학의 열매 맺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죽음충동과 문학하기 간 연결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본고는 이들 작품이 의식의 흐름에 따른 전개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죽음충동이 문학의 전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²⁸⁾ 마지막으로, 이들 작품에서는 문학하기의 열정이 다시 삶의충동을 낳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放浪」은 〈出發〉 〈車窓〉 〈山村〉의 세 개 글편들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앞의 두 글편들은 여행 중의 기차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 글편은 도착하여 머물게 된 산촌의 정경을 담고 있다. 이 글은 본 절의 논점과 관련하여, 나머지 두 개의 글편들과 달리,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車窓〉에 주목한다. 기차 안에서 잠들지 못하는 밤, 기차 昇降口의 車窓을 통해 “바닥 없는 莫大한 어둠”(3, 165)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리에 주목해 보자.²⁹⁾

28) 필자는 이상 시에 대한 논문을 통해 삶의충동과 죽음충동이 충돌한 결과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핀 바 있다. 본고는 이상 수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학하기의 기전을 보다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하겠다.

29) 昇降口에서 객실로 돌아가기 전까지의 화자의 의식의 흐름을 정리할 것이다. (3, 164-166)

(a) 어둠의 광활한 단일함 앞에서 느끼는 공포: **“눈물과 같은 희미한 呼吸”**

① 그 어둠의 初入은 季節의 자잘한 꽃마저 피우고 있는 조그마한 草原, 牧草가 있는 약간의 땅일 것이라는 생각.

② 아름다운 詩를 상기함으로써 恐怖의 海嘯가 얼마쯤 떨어진 것을 느낌.

③ 下弦 달을 바라봄.

(b) **恐怖의 深淵 속에서 忿怒의 呼吸을 들음.**

④ 鐵을 運搬해 온 (철도회사) 사람들의 존재감을 느낌.

(c) 기실,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고 혼자인 것을 인지함. 막대한 어둠 속에서 **“끝끝내 垓地를 紛失”**함.

⑤ 문학의 꽃을 피움.

(d) 먼데 恐怖로부터 自進 逃避하기 위해 객실로 돌아감.

「어리석은 夕飯」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放浪」에서도 광활한 단일함 앞에서 갖는 천문·지구적 실존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立體가 없”이 “深怨한 距離”만을 담고 있을 뿐인 “莫大한 어둠” 앞에서 공포감을 갖는다. 변화가 없는 광활한 단일함이란 곧 죽음과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는 이 앞에서 화자가 느끼는 ‘恐怖’가 죽음에 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본다. (a)의 “눈물과 같은 희미한 呼吸”은 막대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인 반응인 것이다. (a), (b), (c), (d)는 이러한 공포 감정이 조수처럼 화자를 엄습하였다가 밀려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는 그 전후의 문맥을 나타내는 바, 여기에 화자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문학의 열매 맺기가 자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a)의 공포로 인한 “희미한 呼吸”이 (b)에서는 “忿怒의 呼吸”으로 바뀌고 있음은 죽음충동의 자리에 삶의충동이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사이에 개제하는 ①, ②, ③은 삶의충동을 유발하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②에 나타나는 화자의 문학에 대한 열정이 삶의충동을 양산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c)에서는 (b)의 삶의충동이 물러나고 화자가 다시 죽음충동에 휩싸이는 양상을 보여준다. 기차의 보수를 위해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였으나, 기실 승강구 주변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화자는 자신이 “垓地를 紛失”한 것으로 단정 짓는다. 이는 화자가 다시 홀로 막대한 어둠에 몸을 내맡기고 있음을 인식함과 더불어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c)에서 ⑤(d)로 이어지는 의식의 흐름은

본 절의 핵심 논점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 이른바, (c)의 죽음충동에 이어 ⑤에서 문학의 열매맺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⑤의 문학의 열매는 다시 (d)의 삶의충동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문학에 대한 열정과 문학의 열매맺기를 축으로 하여 삶의충동과 죽음충동이 교차하고 있는바, 본고는 여기에서 죽음충동이 문학의 열매 맺기를 전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적 자아상이 존재함을 읽고 있다.

「얼마 안되는 辨解」를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의식의 흐름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은 벗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로서, 세 개의 마디 글들이 여러 단상을 포함하고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단상들을 통해 앞의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죽음충동과 삶의충동이 교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상이 1년 동안 서대문 의주통의 전매청 신축 공사에 참여한 사건을 소재로 하지만,³⁰⁾ 거기에 환상이 끼어들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현실적 사건과 환상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첫 번째 마디 전체와 두 번째 마디의 일부분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1) 첫 번째 마디:

- ① 이상이 건축기사로서 신축하는 전매청의 配線工事に 참여했던 ‘一年’을 회상함.
- ② “죽어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詩”임을 술회함.

2) 두 번째 마디:

- ① 最下級技術者로서 落成式場에 참여함.
- ② 建造物の 階段을 달음질쳐 내려가 황폐한 墓地에 도달함.: 官桶의 壁面에 設備된 조금밖에 안되는 餘白을 利用해서 그는 屍體가 되어가지고 運命의 微分된 差를 運算함.
- ③ “骨格”으로 된 “어떤 그”와, “그라는 骨片”으로의 분열. 전자에 이끌려서 후자는 초겨울의 비속을 걸음.³¹⁾

30) 김윤식 편, 〈해제〉, 앞의 책, (3, 295).

31) 「슬픈 이야기」 전반부의 한 부분과 관련하여 볼 때, 이 부분에서 죽음충동을 엿볼 수 있다. 「슬픈 이야기」에서는 자살계획을 세우고 있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母體’를 亡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육신의 각 부분들이 서로 의지하고 삶의충동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술회하고 있다. 여기에서 ‘骨格’과 ‘骨片’의 관계를 ‘모체’와 ‘각 부분들’ 간의 관계로 대치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④ 질주해 오는 機關車를 향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질러, 정거한 機關車에 승차함.
- ⑤ 파라솔을 받고 鐵道線路를 건너는 두 사람의 나 어린 娼妓를 목격함.
- (a) 그 모양은 그에게 어느 彈道를 思想하게 하여 그가 人生을 橫斷하는 壯烈한 方向을 확인하게 함.
- (b) “그와 同時에” 소리없는 放電이 그 파라솔의 尖銳에서 일어남.
- (c) “그와 同時에” 車室은 삼시에 官桶의 內部로 化하고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壁面의 餘白에 古代未開人의 落書의 흔적이 남음.

.....

3) 세 번째 마다:

이 글에서 또한 1)②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자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2)의 ①, ②, ③은 문학에 대한 열정과 건축기사로서 일해야만 했던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한 갈등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의 ①, ②를 통해 建造物이라는 현실공간과 墓地라는 환상공간의 대비가 나타나는바, 이를 2)③의 骨格(전체)과 骨片(부분)으로 분열된 자아의 양상과 결부하여 생각할 때, 이러한 공간의 대비를 통해 건축기사로서의 나와 문학에의 열정을 가진 나간의 갈등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2)의 ②에서 建造物의 落成式 때, 그 建造物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 도달한 곳이 墓地인 점은 그곳이 바로 현실에서는 건축기사로서 일해야만 하는 나가 문학의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곳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을 죽음충동이 엿보이는 묘지와 연결 짓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첫 번째 마디에서 화자가 “二十三歲 때에 죽어 간, 지난 날의 여러 사람들의 일”(3, 289)을 생각하면서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묘지(곧 죽음)와 문학이 무관할 수 없음을 엿볼 수 있겠다. 시한부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화자에게 있어 “죽어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문학이란 곧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³²⁾

32)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인용문들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먼저는 ⑤(c)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인원] 曰 「비의 電線에서 자는 불꽃만은 죽어도 역시 놓쳐 버리고 싶지 않아」 「놓치고 싶지 않아」 云云. (3, 292) / 다음은 ⑤(c)와 몇 단락의 거리를 두고 전개된 내용이나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인용한다. [인원] 腦髓에 피는 꽃 그것은 가령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서 太陽

2)의 ②, ③, ④, ⑤의 전개과정은, 이 작품에서 또한 의식의 흐름 내에서 삶의충동과 죽음충동이 교차하는 가운데, 죽음충동이 문학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단계적으로 잘 보여준다. ②, ③의 죽음충동에 이어 ④에서 삶의충동이 순간적으로 발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삶의충동은 娼妓의 존재가 내비치듯이 죽음에 수렴하는 삶의충동이라 할 수 있는 ⑤(a)를 거쳐, ⑤(b), (c)에서 다시 죽음충동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할 수 있다. 특별히 ⑤(b)와 동시에 ⑤(c)에서 문학의 열매 맺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官桶의 内部”라는 점은 죽음충동이 문학하기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본고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하겠다.³³⁾

한편 「무제(1)」의 초반부를 통해서 또한 죽음충동이 견인하는 문학에의 의지와 거기에서 소생하는 삶의충동을 엿볼 수 있다. 화자는 “죽음으로 道通하는 길을 한 臺의 車로서 달리고 있”음으로써 “地上의 那邊에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곧이어 그는 “한 개의 철필대에 그의 肺를 連結”함으로써 “죽음으로 道通하는 프로그램의 正을 誤로” “訂正”(3, 296)한 것으로 나타난다.³⁴⁾ 이러한 초반부의 내용에 따르면, 화자는 폐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죽음을 향해 치닫던 중, “철필대”가 의미하는바 문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소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죽음충동에 잇닿아 있는 문학에의 뜻과 그로부터 되살아나는 삶의충동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面鏡〉³⁵⁾은 죽음충동과 문학하기의 관련성을 통해 ▽적 자아상을 살피고 있는 본 절의 논의를 가장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작품이라 할

의 模型처럼 그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3, 292) / 여기에서 이상에게 있어 문학하기란, ‘죽음에의 선구’를 통해 미주한 본래적 실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33) ⑤ 부분에 대해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린 것은 이상의 소설문학이 그의 여성편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III장 2절에서 다시 상론할 것이다.

34)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초반부의 내용이 폐질환으로 의식을 잃은 화자가 다시 의식을 회복한 상황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35) 이 작품은 「失樂園」이라는 제목의 글에 포함된 글편으로서, 시의 성격을 갖는다.

수 있다. 이 작품은 사인이 없는 “難解한 文學”을 남기고 사라진 “悲壯한 最後의 學者”(혹은 “詩人”으로 불림)의 흔적을 거울을 통해 찾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靜物”로 표현되는 거울이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그 사람이라는 사람”의 흔적을 남기고 있을 리 없으며, 그의 생사여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다만, “時計는 左向으로 움직이고 있다” “모든 機構는 年限이다”와 같은 구절들을 통해 그 사라진 시인이 시한부의 생애를 살고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이루어지며, 그가 “戰死”(3, 192-193)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통해 이 작품은 난해한 문학과 죽음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죽음충동이 역설적으로 연속의 역사성을 담지하는 천재의 형상과 유관하며, 죽음충동이 문학의 열매 맺기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죽음충동과 ∇적 자아상 간의 관련성을 살폈다. 또한 삶의충동이 죽음충동과 무관하지 않듯, 죽음충동이 견인하는 문학의 열매맺음이 삶의충동을 되살리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III. 삶의 충동과 이상 문학

1. ‘金海卿’의 목소리로 나타나는 삶과 理想에 대한 갈망

본 절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상 삶의 또 다른 면모에 주목할 것이다. 본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상의 남다른 삶의 역정이 기실 ‘회피로써의 삶’이었음을 다음 절의 논의를 통해 논증할 것이다. 더불어서 그와 같은 ‘회피로써의 삶’이 이상 문학, 특히 소설문학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살피게 될 ‘회피로써의 삶’을 살아가는 이상은 이른바 ‘작가-주인공’ 이상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바, 본 절에서 살피게 될 또 다른 면모의 이상은 이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본 절은 (허구를 위한) 문학적 장치를 거의 발견할 수 없는 몇 편의 수필과私信들을 통해 축어적 의미대로의 삶의충동과 삶의 의

욕을 내비치고 있는 인간적인 이상을 살필 것이다.³⁶⁾ 이를 다음 절에서 살필 이른바 ‘작가-주인공’ 이상과 구분하여 ‘김해경’이라는 본명으로 지시하겠다.

본고가 기본 자료로 삼고 있는 수필집에는 총 10편의 ‘私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실존인물들을 향해 발화하고 있는 ‘私信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 ‘김해경’의 내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해경’의 삶에 대한 진실한 욕구, 이상 실현(문학)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결심, 문학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망, 그리고 가족 및 도덕성과 관련한 초자아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이는 허구의 투입을 허용하는 문학성을 드러내 보이는 작품들에 서의 발화와 차별화되는 면모를 보인다.

10편의私信들 가운데 (一)은 김해경이 그의 여동생 ‘김옥희’를 수신인으로 하되, 부제에 드러나듯이 세상의 모든 오빠들도 함께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중앙》誌에 발표한 글이다. (二)에서 (八)까지의 편지글은 동경 유학중인 시인 김기림을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九)는 H형이라는 실존인물에게 쓴 답글이며, 마지막 (十)은 동생 ‘金雲卿’에게 보낸 엽서이다. (一)은 공적으로 발표할 목적으로 쓴 ‘私信’으로서 다수의 독자들을 예상하고 쓴 글이지만, 김해경이 자신의 친동생 김옥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쓴 글이기에 본 절의 논의에 포함하기로 한다. 같은 구인회의 동인으로서 ‘起林兄’이라고 친근히 부를 수 있는 존재인 김기림을 수신인으로 한私信들(二~八)이 인간 ‘김해경’의 사적인 내면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먼저 살피기로 한다.

私信들(二~八)에서는 김기림을 향해 절박한 어조로 다음의 몇 가지를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들私信들은 김기림의 건강함에 비견하여 김해경 자신의 건강하지 못함을 자조하기, 죽음보다는 생 가운데 “기쁨”과 “재미”

36) 본 절에서 살피게 될 글편들은 백부를 비롯한 이상의 가족들, 김기림과 같은 문인들 등의 실존인물들과의 관계가 선명히 드러난 것들로서 이들을 통해 자연인 ‘김해경’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는 면모들을 거론하게 될 것이다. / 한편, 이 글에서 살피게 될 삶의충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별되는 것임을 서론에서 논의한 바 있거니와, 다음 절의 논의를 통해서는 ‘회피로써의 삶’이 삶의 엔트로피를 높이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충동에 수렴하는 삶에 다름 아님을 살피게 될 것이다.

가 있으리라는 것, 의논할 일들이 많으니 속히 만나자는 제안, 동경 행을 계획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김해경 자신도 동경 사람이 되리라는 것, 동경에 도착한 이후 동경에서의 행보, 그리고 소설 「날개」 「童叢」 「終生記」, 시 「危篤」 등의 작품 활동에 대한 것, 구인회의 동인지인 《詩와 小說》, 김기림의 시집 『기상도』의 편찬에 대한 것 등을 반복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다른 글편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죽음(자살)충동은 거의 엿볼 수 없다. 오히려 문학이라는 이상 실현을 향한 의지와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묻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私信들(二~八)에서 살필 수 있는 이러한 측면들 가운데, 특별히 이상의 동경행이 갖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발화되고 있는 다음의 몇 구절들을 인용해 본다.³⁷⁾

膏肓을 든, 이 文學病을—이 溺愛의, 이 陶醉의……이 굴레를 제발 좀 벗고 飄然할 수 있는 제법 斤量 나가는 人間이 되고 싶소. 여기서 같은 環境에서는 自己腐敗作用을 일으켜서 그대로 煙化 할 것 같소. 東京이라는 곳에가 오직 나를 매질할 貧苦가 있을 뿐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컨디션이 必要하단 말이오, 컨디션, 師表, 視野, 아니 眼界, 拘束, 어찌 適當한 語氣가 發見되지 않소만그러! (私信 二, 3, 223)

살아야겠어서, 다시 살아야겠어서 저는 여기를 왔읍니다. 當分間은 모든 罪와 惡을 意識的으로 默殺하는 道理 外 에는 길이 없읍니다. 친구, 家庭, 燒酒, 그리고 치사스러운 義理 때문에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겠읍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음을全然 모르겠읍니다. 저는 當分間 어떤 苦難과라도 싸우면서 생각하는 生活을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한 篇의 作品을 못쓰는 限이 있더라도, 아니, 말라비틀어져서 餓死하는 限이 있더라도 저는 지금의 姿勢를 拋棄하지 않겠읍니다. (私信 九, 3, 241)

여기에서 “文學病”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문학을 향한 열정을 읽을 수 있다.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 친구, 그리고 소주가 있는 서울을 멀리 하고, 貧苦와 병고를 무릅쓰고 동경행을 감행한 것은 그의 문학을 위한 활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가 동경에서 구하고자 한 “컨디션, 師表,

37) 두 번째 인용은 역시 실존인물인 서울의 H兄에게 쓴 「私信 九」의 일부이다.

視野, 아니 眼界, 拘束” 등은 이를 뜻한다 하겠다. 「私信(六)」과 「東京」에서 묻어나는 동경에 대한 환멸은 김해경이 동경을 자신의 문학을 쇄신할 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는 점과 관련을 맺는다 하겠다.

여동생 김옥희와 세상의 오빠들을 수신인으로 한 「私信(一)」을 통해서도, 이상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³⁸⁾

나는 차라리 그가 나처럼 남의 맘子息임에도 不拘하고 집을 사뭇 떠나겠다는 ‘述懷’에 贊成했느니라.

허허벌판에 쓰러져 까마귀 밥이 될지언정 理想에 살고 싶구나. 그래서 K의 말대로 三年, 가 있다 오라고 勸하다시피 한 것이다. (3, 217)

나도 한번은 나가야겠다. 이 흙을 굳게 지켜야 할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지켜야 할 職責과 나가야 할 職責과는 스스로 다를 줄 안다.

내가 나갔고 작은 오빠가 나가고 또 내가 나가버린다면 늙으신 父母는 누가 지키느냐고? 念慮 마라. 그것은 말 子息된 내 일이니 내가 어떻게라도 하마. 해서 안 되면—.

赫赫한 將來를 爲하여 不幸한 過去가 犧牲되었달 뿐이겠다. (3, 220)

한 三年 나도 공부하마. 그래서 이 ‘노-말’하지 못한 生活의 屈辱에서 脫出해야겠다. 그때 서로 活潑한 鬚으로 만나자꾸나. (3, 221)

오빠 김해경과의 약속을 어기고, 애인과 함께 북쪽 국경을 넘어 간 김옥희에 대한 격려와 훈계의 내용을 삼고 있는 편지글의 일부인 인용문을 통해 이상 실현을 위해 집을 떠나겠다는 의지가, 김해경의 ‘장자 콤플렉스’를 뛰어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김해경은 부모에 대한 은애의 정을 떨치지 못하여, 오랫동안 ‘장자 콤플렉스’에 얽매인 삶을 살아 온 것으로 드러나는 바 이를 통해 김해경은, 앞에서 살폈듯이 이상이 짐스러운 가족에 대한 생각에 이어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초자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과 달리, 장자로서의 도리라는 슈퍼에고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³⁹⁾私信들을 통해서도 이처럼 초자아의

38) 김해경은 동경에서의 마지막 편지이자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인,私信(十)에서 조차 “家庭보다는 하여야 할 일”(3, 243)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39) 이상이 동경행을 결심한 데에는 그의 아우 김운경이 취직을 한 상황이 영향을 미

지배를 받는 김해경의 면모들을 살필 수 있는데,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되는 슈퍼에고는 이상추구에 매진하고자 하는 또 다른 면모와 충돌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양자는 현실의 나와 추구하는 나간의 괴리를 낳은 바, 본고는 그와 같은 괴리가 결국 “‘노-말’하지 못한 生活”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노-말’하지 못한 生活”이란 ‘정상적인 삶’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한다 하겠는데, 이러한 삶의 양상이 곧 다음 절에서 살피게 될 ‘회피로써의 삶’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편, 「私信(七)」을 통해서는 도덕성과 관련하여 김해경의 슈퍼에고를 엿볼 수 있다. 김해경은 김기림에게 당시에 그가 쓰고 있던 시 「危篤」⁴⁰⁾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리고 危篤에 對하여도—

事實 나는 요새 그따위 詩밖에 써지지 않는구려. ① 차라리 그래서 徹底히 小說을 쓸 決心이오, 암만 해도 나는 十九世紀와 二十世紀 틈사구니에 끼여 卒倒하려 드는 無賴漢인 모양이오. 완전히 二十世紀 사람이 되기에는 내 血管에는 너무도 많은 十九世紀의 嚴肅한 道德性의 汚가 威脅하듯이 흐르고 있소그려. (3, 235)

이상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편력의 주체인 작가-주인공 이상의 면모와 비교해 볼 때, 위 편지글을 통해서는 이상 아닌 김해경의 엄격한 도덕성을 엿볼 수 있다. 이른바 20세기 초반에 생의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김해경이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도덕성에 사회화되어 그로부터 탈피할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식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도덕성이 대표하는 슈퍼에고의 존재를 「東京」「十九世紀式」과 같은 수필집의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앞 단락에서 언급한 가족에 대한 슈퍼에고가 이상추구에 의 의지와 충돌하여 “‘노-말’하지 못한 生活”, 즉 ‘정상적인 삶’과의 관계에서 ‘회피로써의 삶’을 낳고 있다면, 十九世紀式의 도덕성은 또 다른 ‘회피

친 것으로 나타난다. / [인용] 여지껏 家族들에게 對한 恩愛의 情을 차마 떼이기 어려워 집을 나가지 못하였던 것을 이번에 내 아우가 職業을 얻은 機會에 東京 가서 厚生살이 좀 하여 볼 作定이오. / 아직은 큰소리 못하겠으나 九月中에는 어찌면 出發할 수 있을 것 같소. (私信 二, 3, 223)

40) 「危篤」에는 매춘하는 아내, 여인의 정조 등을 소재로 한 시편들이 포함된다.

로써의 삶'의 전제가 되고 있다 하겠다. 즉 이상의 소설 작품들에서 육체성을 매개로 한 여성편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이란, 김해경이 간직한 十九世紀式 도덕성으로부터의 회피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절에서 상론할 것이다.

끝으로, 죽음보다는 삶을 갈구하는 인간 김해경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몇 문장들을 인용해 본다.

② 小説을 쓰겠요, 「(우리들의 행복을 하느님께 과시해 줄 거야)」그런 駭怪茫測한 小説을 쓰겠다는 이야기요. 凶計지요? 가만 있자! 哲學工夫도 좋구려! (따분하고 따분해서 못 견딜) 그때위 一生도 또한 死보다는 그래도 좀 재미가 있지 않겠소? (私信 三, 226)

生—그 가운데만 오직 無限한 기쁨이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옴작달작 못할 정도) 轉落하고 만 自身을 굶어 살피면서

生에 대한 勇氣, 好奇心 이런 것이 날로 稀薄하여 가는 것을 自覺하오

이것은 참 濟度할 수 없는 悲劇이오! 芥川이나 牧野 같은 사람들이 맛보았을 성싶은 最後 한 刹那의 心境은 나 亦 어느 瞬間 電光같이 짧게 그러나 참 똑똑하게 맛보는 것이 이즈음 한두 번이 아니오. (私信 七, 235-236)

사람들은 나날이 저렇게들 죽어가는구나 생각하지 저으기 悲感하다. 勿論 五年동안에 더 많은 얘기가 誕生하였으리라—그러나 그렇게 날로 날로 地上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도 또한 슬픈 일이 아닌가. (秋燈雜筆, 3, 76)

私信들에서의 인용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인용한 대목은 김해경이 백부의 5주기를 맞이하여, 추석날 백부의 산소에 성묘를 하면서 느낀 감회를 옮겨 본 것이다. 이들 인용문들을 통해 죽음을 비극으로 인식하고, 삶 가운데 재미와 기쁨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김해경의 내면을 읽을 수 있다. 특기할 바는, 김해경의 이와 같은 삶의충동이 인용문들의 ①, ②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설을 창작하겠다는 의욕과 인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의 시 창작이 「危篤」에 수록된 시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十九世紀의 嚴肅한 道德性”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로부터 탈피하여 문학의 활로를 새롭게 열어 보겠다는 의욕이 소설 창작에 눈을 돌리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상 소설의 ‘(작가)-

주인공’ 인물들이 여기에서의 삶의충동과는 구별되는 두 번째 의미의 삶의 충동, 즉 여성편력을 통해 삶의 엔트로피를 증진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죽음 충동에 수렴하는 삶의충동을 엿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하다.

2. ‘李箱’의 ‘회피로써의 삶’과 그 삶으로써 문학하기

본 절의 논의는 앞 절의 논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되, 양 절의 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앞 절을 통해, 그 동안 연구에서 간과해 온 김해경의 면모들, 즉 삶과 이상 실현에 대한 갈망, 가족 구성원으로서 갖는 인간적인 도리에의 구속, 전래의 도덕성을 존중하는 초자아의 발현 등을 살펴보았다. 김해경은 마찬가지로 「私信들」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상의 삶이 기실 “回避”로써의 삶이었음을 편지의 수신인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발화하고 있기에 이에 주목해 보겠다.

閑話休題—次次 마음이 즉 생각하는 것이 變해 가오. 亦是 내가 固執하고 있던 것은 回避였나 보오. 凶裏에 去來하는 雜多한 問題때문에 極度の 不眠症으로 苦生中이요, 가끔 血痰을 토하고 (中略) 體系 없는 讀書 때문에 가끔 發熱하오. 二三日씩 이불을 쓰고 門外不出하는 수도 있오. 자꾸 自身을 잃어 버리면서도 良心 良心 이렇게 부르짖어도 보오. 悲慘한 일이오. (私信 八, 3, 238-239)

過去를 돌아보니 悔恨뿐입니다. 저는 제 自身을 속여 왔나 봅니다. 正直하게 살아 왔거니 하던 제 生活이 지금 와보니 卑怯한 回避의 生活이었나 봅니다.

正直하게 살겠습니다. 孤獨과 싸우면서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며 있습니다. 오늘 은 陰曆으로 除夜입니다. (私信 九, 3, 242)

두 개私信들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의 “回避”란, 김해경이 이상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하고, 가족 부양의 책임감 하에서 생활하되, 그마저 “노—말”하지 못한 生活”을 일관해 온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⁴¹⁾

41) 첫 번째 인용은 O라는 일본 유학생과 커피를 마시면서 서양음악(바이올린 연주)을 감상한 이후의 감회를 기술한 것에 이어지는 것이며, 두 번째 인용은 서울로

실존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연인 김해경의 목소리를 엿들 수 있는私信들에서 이와 같이 ‘회피로써의 삶’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과 더불어, ‘허구를 수용하는 문학성’이 가미된 작품으로 읽히는, 수필집에 수록된「病床以後」 「얼마 안되는 辨解」 「무제(1)」 「무제(나)」 등의 작품들을 통해서도 이상이 그의 삶을 ‘회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病床以後」는 이상이 건축기사로서 참여하였던 전매청 신축공사 현장인 “義州通工事場에서”(3, 59) 쓴 것으로 부기되어 있는데, “나”가 아닌 “그”를 중심인물로 설정하고 있기에 “소설화를 펴”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 이상이 “의주통 시절”부터 결핵을 앓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⁴²⁾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가 “거짓”의 나와 “참” 나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병으로 의식을 잃었던 ‘그’가 의식을 회복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는 장면에서 시작되는데, 이때 ‘그’는 “醫師를 한날 偉대한 魔法師나 豫言者 처다보듯이”(3, 55) 하면서, 자신의 병세가 위중한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여 내비친다. 역순행적으로 전개되는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하면, 이처럼 생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는 ‘그’가 “참”인 나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의식을 잃었던 것은 “참을 가지고 나를 對하여 주는” 벗의 편지를 받고, 이러한 그에게 “거짓을 가지고만밖에는 對할 수 없는” ‘그’ 자신을 탓하면서, ‘글’을 쓰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글과 그 글의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그’는 “그동안 數個月”의 삶을 “죽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適確할 만큼 “極度の 絶望”(3, 57)에 빠져 있었는데, 인용문의 “그때”는 이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⁴³⁾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인 “그때”의 상

돌아와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라는 H형의 충고에 대한 답글로서, (현실의 절곡에 얽매이지 않고 이상 실현을 위해 매진함으로써) 자신이 살기 위해 동경에 왔음을 토로한 이후에 이어지는 문장들이다.

42) 김윤식 편, 〈해제〉, 앞의 책, (3, 60).

43) [인용] 「참을 가지고 나를 對하여 주는 이 純한 人間에게 對하여 어찌 나는 거짓을 가지고만밖에는 對할 수 없는 것은 이 무슨 슬퍼할 만한 일이나」 그는 그대로 배를 방바닥에 대인 채 엎드려있다. 그는 아픈 몸과 함께 그의 마음도 차츰차츰 아파 들어왔다. 그는 더 참을 수는 없었다. 原稿紙 틈에 켜기어 있는 3030用

황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으로 믿었지만, 글을 쓰는 순간의 판단에 따르면 그러한 믿음 역시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글을 쓸 당시 ‘나’⁴⁴⁾는 여전히 “感情으로만 살아가는 가없는 한 昆蟲”에 불과한 존재로서 참 보다는 거짓의 편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이다. 글 전체의 맥락을 통해, “그때” ‘그’를 휩싼 극도의 절망이란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결말부의 내용은 인용문을 집필할 당시의 ‘나’의 판단, 즉 “그때”의 나(즉, 그)가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결말부에서 ‘그’는 의사가 다녀 간 이후 다시 “希望에 애태우는 人間”(3, 59)으로 나타나는데, 절망에 처한 그가 현실을 직시하는 ‘참’의 편에 선 나라면, 희망 속에서 “光明”을 보는 나는 현실에 대해 ‘거짓’으로 임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가 절망 속에서 삶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나라면, 후자는 (치명적 질환이라는) 현실로부터의 ‘회피’를 시도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음으로 치닫는 삶의충동이란, 후자의 거짓 나와 유관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病床以後」와 비슷한 시기에 쓴 작품으로 알려진 「얼마 안되는 辨解」를 통해서도 이상의 삶이 “回避”의 성격을 띤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의주 통 전매청 신축 현장에서 배선공사에 참여하였던 1년을 회고하면서 시작되는 이 작품의 초반부에서도 “그는 겨울과 더불어 運命을 回避하고 있다”는 문장을 통해, ‘회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전후 문맥을 고

紙를 꺼내어 한두 자 쓰기를 始作하였다. 「그렇다 나는 確實히 거짓에 살아왔다. — 그때에 나에게는 體驗을 伴侶한 무서운 動搖가 왔다. — 이것을 나는 根本的인 줄만 알았다. 그때에 나는 果然 한때의 慘酷한 乞人이었다. 그러나 오늘까지의 거짓을 버리고 참에서 살아갈 수 있는 ‘人間’이 되었다—나는 이렇게만 믿었다. 그러나, 그것도 事實에 있어서는 根本的은 아니었다. 感情으로만 살아가는 가없는 한 昆蟲의 內 波紋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나는 發見하였다. 나는 또한 나로서도 또 나의 周圍의 모—든 것에게 對하여서도, 치라리 여지껏 以上の 거짓에서 살지 아니하면 아니되었다……云云.」 이러한 文句를 늘어놓는 동안에 그는 또 한 몇 절의 짧은 詩를 쓴 것도 記憶할 수도 있었다. 펜이 無聊히 종이 위를 滑走하는 동안에 그의 意識은 차츰차츰 朦朧하여 들어갔다. (3, 58)

44) 「」로 묶인 인용문에서는 ‘그’가 일인칭 서술자 ‘나’로 바뀐다.

려할 때, 죽음충동이 그와 같은 인식을 불러 일으켰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群衆인양”(3, 289) 싶은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는 그가 죽음 앞에서 “複數”의 나로 분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어지는 문맥은, “죽어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3, 289) 문학에의 열정을 피력하는가 하면, 이른바 “運命을 回避”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그는 現存과 現存뿐만으로 된 或種의 生活을 製作하였다”(3, 290)라는 문장이 주목된다. 「病床以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질환 앞에서 절망하는 나가 삶에 대해 애착을 갖는 ‘참’인 나라면, 희망에 휩싸여 광명을 바라보는 나는 거짓의 나임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바로 앞에서 인용한 문장에는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기를 기피하려는 심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죽음이 전제되어 있지만 그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을 때 과거와 미래를 회피한 가운데 현재만의 삶을 “製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를 ‘회피로써의 삶’으로 본다.

「무제(1)」을 통해서도 시한부의 삶에 대해 회피로써 대응하는 ‘그’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二十三歲의 그가 늙은 樂聖을 만나, 地球儀를 그에게 내밀면서 “君의 애드레스”를 찾아보라는 樂聖의 말에 지구의를 면밀히 조사해 보지만, 陸地의 어느 곳에서도 그의 애드레스를 찾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樂聖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술되는 “生活을 拒絕하는 意味에서 그는 蓄音機의 레코오드를 거꾸로 틀었다”라는 문장과, 악성의 지시대로 地球儀를 조사한 결과 “다만 文字라고는 물이 된 部分에 「거꾸로 紀錄된 樂譜의 世界」”(3, 297)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진술을 통해, 그가 카운트다운하는 식의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 참다운 “生活을 拒絕”하는 회피적인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열한 개의 짧은 마디 글로 이루어진 「무제(나)」의 (1) 부분을 통해서도 회피로써 시한부의 삶을 맞이하는 나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나의 생활은 나의 생활에서 1을 뺀 것”으로서 “감산”되는 것이며, “나는 그것때문에 또다른 하나의 생활을 잃어버”(3, 344)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시에 대한 논문을 통해 복수의 자아상 가운데 하나의 자아상이 ‘선택적으로’ 발현됨을 논의한 바 있거니와, 이 부분을 이러한 시에 대한 논의

와 결부하여 따져 볼 수 있겠다. “감산”하는 삶 때문에 잃어버린 “또다른 하나의 생활”이란 시한부의 삶을 회피적으로 살아간 결과, 선택하지 못한 또 다른 양태의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수필집에 묶인私信들과 다른 몇 편의 작품들을 통해, 직설적으로든 문학적으로든 “회피로써의 삶”에 대한 인식이 이상의 글편들에서 묻어남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상 소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천재’와 ‘탕아’의 형상을 논의한 바 있다.⁴⁵⁾ 여기에서 탕아의 형상이란, 곧 삶의 엔트로피를 증진시키는,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수렴하는 삶의 충동을 보이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논의를 통해 그러한 탕아 형상이 ‘회피로써의 삶’과 관련을 맺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私信들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김해경의 면모는 삶과 이상에 대한 갈망을 지닌, 그리고 19세기의 도덕성에 의해 정립된 초자아를 가진 인물이다. 또한 문학성을 띤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살폈듯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삶에의 애착을 보이는 나가 거짓이 아닌 참을 드러내 보이는 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 소설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여성인물들과의 단속적인 관계들을 통해 단절의 역사관을 보이는 탕아의 형상이란 이러한 ‘참’에 반하는 존재이며, 그 삶의 양태란 곧 ‘회피로써의 삶’, 그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이상의 소설 창작과 파괴적인 삶의충동 간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한편, 이상의 시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거기에서 ‘회피로써의 삶’에 대한 인식이 묻어남을 부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鳥瞰圖 詩第七號」, 「且8氏의 出發」 등의 시편들은 가족에 대한 과중한 책임감을 감수하는 삶이 또한 ‘회피’에 속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작품들에서는 가족에 얽매인 삶을 식물적인 것으로서 자조하고 있다.⁴⁶⁾

45) 김은경, 「이상 소설 연구-‘천재’와 ‘탕아’의 형상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46) 수필 「구두」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가족 부양을 위해 발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움직여야만 하고, “食物以外的 그 어떤 것에도 盲目”(3, 303)인, 그로 인해 “이곳에 囹圄되지 않으면 안되는”(303) 상황에 대한

시 鳥瞰圖 「詩第七號」(1, 33)는 한 달을 주기로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적 책임을 저야만 하는 삶의 고달픔과 그로 인해 식물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자어의 쓰임이 많은 「詩第七號」에 대한, 기본 자료에 부기된 해제의 풀이 및 필자의 주석(*)을 덧붙여 그 원문을 인용해 본다.

久遠謫居的地之一技⁴⁷⁾・一技에피는顯花⁴⁸⁾・特異한四月의花草⁴⁹⁾・三十輪⁵⁰⁾・三十輪에前後되는兩側의明鏡⁵¹⁾・萌芽와같이戲戲하는地平을向하여금시금시落魄하는 滿月⁵²⁾・清澗의氣가운데滿身瘡痕의滿月이劊刑當하여渾淪하는⁵³⁾・謫居의地를貫流하는一封家信⁵⁴⁾・나는僅僅히遮戴하였더라⁵⁵⁾・濛濛한月芽⁵⁶⁾・靜謐을蓋掩하는大氣圈의遙遠⁵⁷⁾・거대한困憊가운데의一年四月의空洞⁵⁸⁾・槃散顛倒하는星座와星座의千裂된死胡同을跑逃하는巨大한風雪⁵⁹⁾・降霾⁶⁰⁾・血紅으로染色된岩鹽의粉碎나의腦를避雷針삼아沈下搬

탄식을 담고 있다.

-
- 47) 영원한 귀양살이의 땅, 하나의 나뭇가지
 48) 하나의 나뭇가지에 핀 꽃 (* 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
 49) 특이한 사월의 화초 (* 역시 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아래에서 “一年四月의空洞”을 4월의 보릿고개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와 연관해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50) 삼십 개의 수레바퀴. (* 한 달 30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1) (* 해와 달이 교대로 뜨고 지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한 달 30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52) 새싹처럼 즐거워하는 지평을 향하여 지는 만월
 53) 맑은 산골목의 기운 가운데 만신창이의 달이 의형당하여 어지럽게 물놀이하는. (* 흔들리는 물결에 비취어 이지러진 달의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54) 귀양살이하는 땅을 통과하여 흐르는 한 봉의 집에서 온 소식. (* 한 달의 가족의 생활비를 요구하는 소식인 것으로 본다.)
 55) 나는 겨우 그 일봉가신(달)을 대비하여 기다려서 머리에 얹었더라. (* 어렵게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였음을 뜻한다 할 수 있다.)
 56) 몽몽한 달의 싹. (* 다시 시작되는 한 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7) 고요함을 덮는 대기권의 아득함.
 58) 커다란 괴롭고 고달픈 가운데의 일 년 4월의 빈 골짜기. (* 4월의 빈 골짜기는 보릿고개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난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화자의 곤비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9) 반산전도하는 성좌와 성좌의 천갈래로 갈라진 곳(사호동)을 허비면서 달아나는 거대한 바람과 눈.

過되는 光彩淋漓한亡骸⁶¹⁾·나는搭配하는毒蛇와같이地平에植樹되어다시는起動할수없
었다라·天亮이 올 때까지⁶²⁾

밑줄 그은 부분은 이 시에 대한 필자의 해석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수필집의 여러私信들 및 작품들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상은 이상 실현을 위해 가족을 떠나 동경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지녀 온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가족 부양의 책임감에 얽매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地平에 植樹”된 것으로서 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且8氏의 出發」(1, 178) 또한 떠남에의 갈망과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 간의 괴리가 결국 식물적 삶을 낳고 있음을 노래한 작품으로 읽힌다.⁶³⁾ 권봉을 돌렸을 때 거기에 원심력이 작용하는 바, 이는 화자의 떠남에의 갈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봉의 원심력이 갖는 의미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은 원심력 대신 구심력을 발휘하여 지구를 굴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지구를 굴착한다는 것은 성 행위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상실현과는 무관한 생리적인 욕구 충족에 그치는 삶인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사람은 운동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시 초반부에 등장하는 사막의 산호란 이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결국 시의 결말부에서 且8氏의 행보가 은화식물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꽃을 피우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은 떠남에의 갈망을 충족하지 못하고 囹圄된 식물적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동경행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상의私信들, 그리고 시 「鳥瞰圖 詩第七號」와 더불어서 살필 때 「且8氏의 出發」 또한 장자로서 가족 부양의 책임을 저야만 하는 초자아에

60) 흙비가 내림.

61) 혈흥으로 염색된 바위소금의 분쇄 나의 뇌를 피뢰침삼아 침하 옮겨지는 광채나는 망해. (* 각주 57~60는 한 달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분투하는 화자의 어려움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2) 하늘의 도움이 올 때까지.

63) 필자는 상기한 이상 시에 대한 논문을 통해 이 시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 바 있다. 그런데 이상 수필에 대한 연구를 거치면서 「且8氏의 出發」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다. 김은경, 「李箱 詩에 나타난 主體 형상의 기호학적 분석 - 잉여/결여(▽△) 및 발산/수렴(凹凸)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엷매인 삶을 식물적인 삶으로서 자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IV. 죽음 충동과 이상 문학

1. ‘비추어보는’ 시한부의 삶과 未踏인 ‘참나’의 상징

필자는 이상 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의 시에 ‘영원한 가설’로서의 주체가 상정되어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기존 논문을 통해, 현실태로서 선택된 〈현실적 자아〉는 잠재태로서의 〈현실적 자아〉c를 포기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 그 결과 이상 시가 ‘영원한 가설’로서만 존재할 뿐인 주체 형상을 노래한 것임을 밝혔다.⁶⁴⁾ 본 절의 논의는 이러한 기존 논의의 맥락을 잇는 것으로서, 수필을 통해 발견되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주장을 덧붙이겠다.

수필집에 수록된 이상의 작품들 가운데에서 주목되는 한 가지는 시한부의 생애를 ‘비추어보기’의 방식으로 액자화하여 조명한다는 점이다. 비추어보는 매체로는 물 속, 그림 속, 꿈 속 등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삶을 현존 그 자체로서 인식하지 않고 비추어보는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은 또 다른 가능태의 삶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앞으로 살피게 될 이상의 작품들은 비추어보기가 미답의 나에 대한 추구하고 결부됨을 보여준다. 시한부의 생애와 비추어보기, 그리고 잠재태로서 존재하는 미답의 나를 추구하기는 죽음충동에서 발원하여 의미 있는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하겠다. 여기에서는 이상이 ‘비추어보기’를 통해 시한부의 생애에 정면 대응하여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응시하는 한편, 현실태의 나가 아닌 미답인 ‘영원한 가설’로서의 나를 추구하고 있음을 논할 것이다.

「슬픈 이야기」 「무제(나)」에서 현실태의 삶을 직접 바라보지 않고 ‘비추어보기’를 행하는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2주

64) 김은경, 「李箱 詩에 나타난 主體 형상의 기호학적 분석 - 잉여/결여(▽△) 및 발산/수렴(凹凸)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간의 여행을 소재로 한 「슬픈 이야기」에서는 “圖畫紙 위에 單色으로” 그린 “風景畫”(3, 66)를 통해 죽음충동을 현실화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부분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풍경화가 가능태로서의 삶을 액자화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추어보기’의 매체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 “風景畫” 속에서 화자는 여인과의 동반자살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자살계획을 철회하는 현실의 나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엔트로피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삶의충동을 실현하는 현실태의 나가 ‘회피로써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추어보는 풍경화 속의 ‘나’란 또 다른 가능태로서의 ‘나’를 상정한 존재라 하겠다. 이러한 ‘비추어보기’가 죽음충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무제(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제(나)」에서는 감산되는 시한부의 생애 가운데 일 부인 “나의 생활의 국부”를 “회중전등으로 비추어 본다”는 구절이 나타나는 바, 이를 통해서도 ‘비추어보기’와 ‘죽음충동’ 간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하겠다.

「슬픈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비추어보기’가 나타나는데, 작품 초반부에 자리한 이 ‘비추어보기’가 미답의 가설로서의 자아 추구하기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의 화자인 나는 “黃昏” 무렵부터 무수한 성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밤까지의 시간 동안 “물 속”에 ‘비추어지는’ 주변의 풍경과 밤하늘을 바라본다. 나는 “물 속”에 비추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다 “땅 위”의 풍경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때 두 개의 풍경 간에 시간적인 경계가 그어지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의 〈거울〉 시편들을 통해 살필 바 있듯이 복수의 자아형상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자아 형상이 선택적으로 구현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내비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나아가서 이처럼 “물 속”을 비추어보는 행위를 자살 시도를 앞두고 현실태의 나가 아닌 또 다른 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겨 볼 수 있겠다. 특별히 화자인 나가 무수한 별들이 떠오르고 있는 ‘밤하늘’을 “물 속”으로 들여다보고 있음은 의미가 깊다 하겠다. 별들이 점점 많이 떠오르는 밤하늘을 “會場”으로 비유하면서 “물 속”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 화자의 자세는

현실태로부터 거리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땅 위”의 “물 속”에서 “하늘”을 비추어본다는 것은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자세라 할 수 있겠는데, 본 절에서 살피게 될 다른 작품들과 관련지어 볼 때 본고는 그것이 미답인 자아—앞에서 살핀 ‘회피로써의 삶’을 고려할 때 이를 ‘참나’로 지칭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에 대한 추구인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비가 내리려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물 속” 풍경은 갑작스럽게 “‘추잉껌’ ‘카라멜’ 껌데기가 여기저기 헤어져”(3, 63) 있는 잡담하였던 현실태의 흔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른바 “물 속” 풍경이란 미답의 상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失樂園」의 일부분을 이루는 〈月像〉, 「무제(1)」, 「무제(2)」 등의 작품에서는 “비추어보기”를 통해 미답의 자아를 추구하는 면모를 보다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 「무제(2)」 〈月像〉 「무제(1)」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시 형식에 가까운 「무제(2)」는 고양이를 잃어버린 ‘나’가 그 고양이를 찾는 일을 맡은 役員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는 상황들을 틀로 하여 전개된다. 이 작품이 주목되는 것을 꿈을 매체로 한 ‘비추어보기’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그를 통해 플라톤의 이데아설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양이를 찾아 달라는 나의 의뢰를 받은 역원은 그가 목도한 상황들을 第三報, 第四報, 第五報로서 나에게 보고하는데, 그 내용과 ‘나’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상황들 간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환상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이러한 사실이 환상성을 낳고 있는 주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작품이 전개되는 순서에 입각하여, 아래에서 직접인용하게 될 부분 이전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겠다.

역원이 목도하고 보고하는 내용	‘나’의 경험
1연: 第三報: (고양이가) 역시 없습니다.	
2연: 第四報: (고양이가) 역시 있었습니다.	
	3연: 四次元の 展望臺 위에서 “물려 죽은 개의 에스프리”를 태운 飛艇을 전송함.
	4연: (잃어버린) 고양이의 대리를 보기 위

역원이 목도하고 보고하는 내용	‘나’의 경험
	해, 나는三更에 牧場으로 나감. 어느 사이에 돌아온 고양이가 熟睡하는 개들을 지킴
5연: 이튿날 나를 방문한 役員에 따르면, 第五報를 가지고 가려고 삼경 이후 나를 방문한 역원은, 내가 나의 방에서 수백마리의 개를 몰아 죽이고 있는 장면을 목도함.	5연: 役員의 보고에 뒤이어 내가 생각한 바는 다음과 같다. “事實, 나의 驅殼全面에 개들의 꿈의 放射線의 波長은 直徑을 가진 수없는 穿孔의 痕迹을 나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리한 바에 따르면, 내가 역원에게 의뢰하여 고양이를 찾고 있는 상황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기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의 생사 여부인 것으로 드러난다. “개”를 중심에 놓고 볼 때, 그 “개”에 대해 인식하는 주체는 ‘나’, ‘役員’, ‘꿈을 꾸는 개’로서 모두 셋이 된다. ‘개’라는 동일한 존재는 세 존재의 의식을 통해 인식되는 바, 그 내용은 모두 상이하다. 3연에 따르면, ‘나’는 이미 “몰려 죽은 개의 에스프리”를 태운 비정을 四次元の 展望臺에서 전송한다. 그런데 4연에 따르면,三更에 牧場을 찾은 나는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고양이가 개들을 어머니처럼 지키고 있는 것을 목도한다. 3연의 四次元の 展望臺에서는 이미 죽은 개의 에스프리를 나가 전송한바 있지만, 4연에서는 내가三更의 牧場에서 고양이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개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3연과 4연을 통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시공간에 따라 개의 존재 양태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연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第五報를 전하기 위해 이튿날 나를 찾은 役員이 지난밤三更에 목도한 바가 앞의 것들과 이질적인 것으로서 추가적으로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나는 지난밤三更 무렵, 수백마리의 개들을 나의 방에서 몰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5연에서 역원이 목도한 이러한 상황을 나는 “驅殼全面에” 남은 “개들의 꿈의 放射線의 波長”으로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나에게 따르면, 역원은 개들의 꿈이 나의 구각전면에 ‘비추어지는’ 방사선의 파장을 목도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주체들에 의해 상이하게 인식되는 개들의 존재(혹은 죽음)의 양태는 어느 것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러한 설정 하에서 이 시의 주제연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연이 다음처럼 전개된다.

(…전략…) 나는 봉해 온 毒睡의 分析을 서두를 必要를 느꼈다.

毒睡도 마침내 加熱에 反應없이 더워 오지도 않았다.

이 일은 푸로톤의 暗示이었다.

生死의 超越—存在한다는 것은 生死 어느 편에 屬하는 것인가. 그것은 푸로톤의 一次方程式보다도 더 幼稚한 運算이었다.

(常數가 붙은 函數方程式) (3, 300-301)

인용문은 앞의 설정이 플라톤의 이데아설을 염두한 것임을 드러내 보인다. 四次元의 나,三更 목장의 나,三更 나의 방을 들여다본 役員, 개의 꿈 등은 모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본 절에서의 주체 논의를 이에 대입해 볼 때, 여기에서 ‘영원한 가설’로서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生死의 超越—存在한다는 것은 生死 어느 편에 屬하는 것인가”라는 구절을 5연의 내용과 연관 지어 볼 때, 여기에서 화자인 나가 ‘장주의 호접몽’을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화자가 가능 대들로서의 현실 가운데 어느 것도 절대의 것으로 두지 않는 장자적 세계관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의 질문을 “푸로톤의 一次方程式보다도 더 幼稚한 運算”으로서 단정 짓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마지막의 “(常數가 붙은 函數方程式)”이란 구절은 그림자에 불과한 세계를 초월하는 절대의 중심이 존재함을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⁶⁵⁾ 여기에서 이상이, 그것이 ‘영원한 가설’로서 미답의 것일지라도 절대의 ‘참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失樂園」에 포함된 〈月像〉은 「무제(2)」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작품 역시 시 형식에 가깝다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에서 화자인 나는 “달이 있는 反對 方向으로 걷기 시작”함으로써 나의 그림자를 쫓다, 달이 추락하면서 “드디어 나는 내 前方에 疾走하는 내 그림자를 追擊하여 앞설 수 있”(3,

65) “푸로톤의 一次方程式”이라는 구절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일차방정식 $aX+b=0$ (A:상수)에서 $a \neq 0$ 일 때, 해인 x 는 $-b/a$ 로서 단 하나만 존재한다. 즉 상수 A가 존재하는 한 단 하나의 해만을 갖는 “一次方程式”과 “常數가 붙은 函數方程式”은 모두 참다운 실재를 고려한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194)게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그림자를 쫓는 나란 작품의 문맥에 따르면, 昨日들을 생각할 때 暗黑만을 떠올리는, 이른바 죽음충동에 휩싸인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그러한 현실태로서의 나 너머에 본래적인 나가 존재할 것으로 믿고 그 그림자를 추격하고자 한다. 결말부에서 결국 그림자를 앞서게 된 나란 플라톤의 이데아에 상응하는 절대적 참나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러나, 그 일은 달이 추락하여 지구가 피투성이가 되고 “負傷한 달의 惡血 가운데 遊泳하면서 드디어 結氷하여 버리고 말”(3, 194) 상황여야 가능한 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절대적 참나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여전히 미답의 것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무제(1)」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c 간의 관계가 선택적이라는 기존 논문에서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본 절의 논의를 마감하겠다. 앞에서 「무제(1)」을 통해 죽음충동이 문학의 열매 맺기를 추동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점, ‘회피로써의 삶’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 등을 논의한 바 있거니와, 여기에서는 이 작품의 결말부를 통해 가능태로서의 삶들 가운데, 하나의 현실태로서의 삶을 선택적으로 맞이하는 화자의 상황을 살펴도록 하겠다. 이는 앞의 ‘회피로써의 삶’에 대한 논의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바, 樂聖을 만나 “地上的 那邊”(3, 296)에도 자신의 “애드레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이어서 악성의 引導를 받아 密室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天井, 마룻장, 前方壁面 모두에 거울이 가득 끼워져 있어 그 자신과 악성을 ‘비추어’ 주고 있음을 목도한다. 필자의 기존 논문 및 이 글의 앞에서의 논의에 이어서 생각해 볼 때, 거울 속에 ‘비추어지는’ 나들이란, 가능태로서의 자아상을 의미한다 하겠는바, 악성은 시한부의 삶을 회피적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내 그대의 右를 빼앗고 終生の ‘左’를 賦役하니 그리 알지어라”(3, 298)라고 선포한다. 이는 右가 〈현실적 존재〉c, 즉 가능태로서의 ‘참나’로 상정되고, ‘회피로써의 삶’이라 할 수 있는 左가 선택적으로 〈현실적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수필집에 수록된 작품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시에 대한 논문을 통해 살핀 바 있는 ‘영원한 가설’로서의 주제 논의가 플라톤적임을 밝힐

수 있었다. 이상은 그의 수필 여러 곳에서 장자적 세계관의 편린들을 보여 주지만 이의 편에 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여러 편의 작품들을 통해 ‘비추어보기’를 통해 현실태로서의 나(〈현실적 존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은, 그것이 비록 미답의 것일지라도 또 다른 가능태로서의 나(〈현실적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절대적 초월의 지점을 사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⁶⁶⁾ 본고는 본 절의 논의를 통해 드러난 바가 이상이 그의 삶과 죽음을 응시한 참된 방식이었던 것으로 본다.

2. 문학의 媒劑로서의 과학과 방법론적 문학하기

앞에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 삶의충동 가운데 ‘회피로써의 삶’이 이상의 소설창작과 긴밀한 관련을 가짐을 논한 바 있다. 본고는 흔히 이상 소설의 사소설적 성격을 거론할 때 주목하게 되는 ‘작가주인공’이 ‘탕아의 형상’ 혹은 △적 자아상과 접맥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IV장 1절에서의 논의까지를 포괄하여 고려할 때, 이러한 자아형상이란 미답인 ‘참나’의 형상에 미치지 못한, 비본래적인 그림자와 같은 성격을 띤다 할 수 있겠다. 플라톤의 이데아에 비견되는 ‘참나’를 상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회피로써의 삶’을 살아간 작가·이상이 그의 삶을 통해 이른바 작품의 소재들을 “製作”⁶⁷⁾한 것으로 보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 소설 창작의 경향성을 이와 같이 논한 바탕 위에서, 본 절은 이상

66) 이와 관련하여 「얼마 안되는 辨解」에서 다음을 인용해 본다. 인용문을 통해, 이상이 절대적 중심을 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인용] 한 개의 林檎의 껍질을 벗기자 한 개의 배로 되었기 때문에 그 배의 껍질을 벗기자 한 개의 柘榴로 되었기 때문에 그 柘榴의 껍질을 벗기자 한 개의 네블로 되었기 때문에 그 네블의 껍질을 벗기자 이번에는 한 개의 無花果로 되었기 때문에……/ 견잡을 수 없는 暴虐한 秩序가 그로 하여금 그의 손에 있던 나이프를 내동댕이쳐 버리게 하였다. / 내동댕이쳐진 小刀는 다시 小刀를 낳고 그 小刀가 또 小刀를 낳고 그 小刀가 또 小刀를 낳고 그 小刀가 또 小刀를 分娩하고 그 그 小刀가 또…… (3, 292)

67) 이와 관련하여 「얼마 안되는 辨解」에서의 다음의 인용을 환기해 보자. [인용] 그는 現存과 現存뿐만으로 된 或種의 生活을 製作하였다. (3, 290)

시 창작의 경향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상 시에 대한 기존 논문에서 밝힌 바 있듯이, 이상 시 창작은 상당부분 ‘과학’을 매체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⁶⁸⁾ 기존 논문에서 비중 있게 다룬 ‘數의 언어학’은 그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상 수필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필자의 이상문학에 대한 연구들을 되돌아볼 때, 이상 문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과학을 매체로 하는 문학하기가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누어짐을 살필 수 있었다. ‘모더니스트’로 분류되는 이상은 그 본령에 충실하여 지성적인 입장에서 과학에 접근함과 아울러, 그러한 과학-지성을 해체(“포기”)하는 반-지성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글쓰기 방식을 본고는 ‘방법론적 문학하기’로 칭한다.

2.1. 지성적인 입장에서 글쓰기

(1) 천문·지구적 상상

이상의 수필집을 통해 인식 지평의 영역을 천문·지구적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살필 수 있었다. 이는 과학적인 지식에 기초한 발상이라 하겠는데, 본고는 이를 ‘천문·지구적 상상’이라 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것은 ‘천문·지구적 실존의식’이다.⁶⁹⁾ 인식 영역을 지구적, 천문적으로 확대한 결과 恐怖, 不安과 같은 감정이 솟아남과 아울러, 죽음충동이 유발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수필집에 수록된 「어리석은 夕飯」, 「첫 번째 放浪」, 「倦怠」, 「夜色」 등의 작품을 통해 이를 살필 수 있다. 먼저, 「어리석은 夕飯」에서 다음을 인용해 본다.

68) 본고의 제목에 포함된 媒劑라는 용어와 그 쓰임은 이상의 글 「권두언 16」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인용] 經驗主義를 排擊하라 // 그리하여 技術의 道로 돌아가라. / 技術이란…… / 全科學의…… / 社會에의…… / 媒劑이다. (3, 209)

69) II장 2절에서 「어리석은 夕飯」 「첫 번째 放浪」에 나타난 죽음충동을 논의하면서 이 두 작품에서 살필 수 있는 ‘천문·지구적 실존’에 대해 미리 언급한 바 있다. 이때 천문·지구적 실존의식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소가 ‘광활한 단일함, 무변화’인 것을 논의하였다.

쇠파리와 함께 이 白晝는 죽음보다도 더욱 寂寞하여 音響이 없다. 地球의 끝 聖스런 土地에 壯嚴 疾患이 있는 것일 게다.

닭도 그들에 쉬고 개는 목을 드러우고 있다. 大氣는 근심의 빛에 充滿하였다.

뼈 마디 마디가 封命을 目標하고 쏜다. 모든 나의 知識은 忘却되어 彪대한 岩石 같은 深淵에 臨하여, 一握의 木片만도 못하다.

微溫의인 體臭를, 겨우 녹슬어 가는 花草의 混雜 속에 維持하고 있는 나.

헛된 抱擁—사랑하는 者들이여. 어느 곳으로? 情緒의 完全한 孤獨 속에서 나는 나의 骨節마다 疼痛을 앓는다.

그러나 나에겐 들린다—이 크나 큰 不安의 全體의인 音響이—쇠파리와 함께 밑바닥 깊숙이 寂寥해진 天地는, 내 腦髓의 不安에 견딜 수 없으므로 因한 昏倒에 衣한 것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이제 地上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이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宇宙는 그냥 그대로 暗黑의 밑바닥에서 悶絶하여 버릴 것이다.

늘어선 짐들은 恐怖에 떨고 啓示의 종이조각 같은 白蝶 두서너 마리는 花草 위를 彷徨하며 斷末魔의 숨을 곳을 찾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 그런 곳이 있는가. 大地는 間毛의 틈조차 없을 만큼 구석마다 不安에 侵入되어 있는 것이다. (3, 129)

인용문을 통해 우선 주목되는 바는, 화자인 나의 인식 지평이 白晝라는 광막한 무변화의 시공간, 天地, 天地의 밑바닥 깊숙한 곳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 지평의 확대와 비례하여 의식은 내면을 향해 팽창되면서 자의식 과잉의 상태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天地와 그 天地의 밑바닥 깊숙한 곳까지를 휘감고 있는 극도의 寂寞에서 비롯하는 불안감의 형태로 드러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白晝”의 시공간성은 “天地”와 그 “天地의 밑바닥”으로까지 확대되는데, 극도의 불안감은 그 시공간성의 적막함 가운데 ‘나’가 개별적 단독자로서 존재함을 의식하는 순간 엄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존체험이란 지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상수적인 ‘광활한 단일함, 무변화’가 이러한 실존체험과 더불어 죽음충동을 유발함을 앞에서도 살핀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倦怠」와 「夜色」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겠다. 글을 마치는 부분에서 〈十二月 十九日 未明, 東京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倦怠」는 평남 성천에 머물렀을 때를 소재로 하여 쓴 글로 알려져 있다.⁷⁰⁾ 전체 일곱 개의 마디 글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시골 마을에서의 일과를 담고 있다. 이 일곱 개의 마디 끝에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이 잘 드러나 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10시경에 아침을 먹은 이후, 최서방네 집 사랑 뒷마루에서 최서방의 조카와 장기를 두다. 계속하여 이기기만 하는 장기두기에서 압도적 권태를 느끼다.
- (2) 개울가에서 일망무제의 초목을 바라보며 권태를 느끼며, 권태를 자각할 줄 모르는 농민들에 대해 생각하다.
- (3) 개울가에서 짓지 않는 개들을 바라보다.
- (4) 개울가에서 권태와 자의식 과잉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다. 개울가에서 주인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미하는 개 한 쌍을 보고 인공의 기교가 없는 축류의 교미하는 풍경이 권태 그것인 것같이 여기다. 주인집에서 세수를 하다.
- (5) 주인집에서 다시 개울가로 나가다. 개울가 웅덩이 속의 송사리떼를 관찰하다. 이어 풀밭에 누워 반추하는 소의 권태에 대해 생각하다.
- (6) 길 복판에서 장난감이 없어 놀 줄을 모르는 아이들의 권태에 대해 생각하다.
- (7) 밤, 주인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밖에서 잠시 산책을 하다. 그리고 흥행한 형리와 같은 내일에 대해 생각하다.

정리한 바에 따르면, (3)과 (7)을 제외하고는 모두 ‘倦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倦怠’의 핵심요소가 ‘무변화’라는⁷¹⁾ 점을 고려하면, (3) (7)에서 또한 화자의 권태를 엿볼 수 있다. 이른바 화자는 하루 동안 바라본 풍경과 그 풍경속의 사람들, 축류들을 통해 권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권태의 장면들 가운데 (2)에 주목해

70) 김윤식 편, <해제>, 앞의 책, (3, 154).

71) 수필집의 다른 글편을 통해서도, 이러한 권태에 대한 사고의 편란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은 <保險 없는 火災>, <斷指한 處女>, <此生輪回>, <空地에서>, <都會의 人心>, <骨董癖>, <童心行列>의 7편의 마디 글로 이루어진 「早春點描」의 <此生輪回>라는 글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이라면 그것은 권태에 다름 아닐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인용]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乞人도 없고 病者도 없고 犯罪人도 없고 하여간 오늘 우리 눈에 거슬리는 온갖 것이 다 깨끗이 없어져 버린 打作마당 같은 말쑥한 世上은 萬一 그런 것이 地上에 實現할 수 있다면 地上은 그야말로 심심하기 짝이 없는 倦怠 그것과 같은 世上일 것이다. 그러니까 慈善家の 虛榮心도 채울 길이 없을 것이고 醫師도 辯護士도 아니 裁判所도 온갖 것이 다 所用이 없어질 것이고 따라서 그날이 그날 같고 이럴 것이니 이래서야 참 정말 束手無策으로 바야흐로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3, 40)

보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 말기로 하자. 그저 限量없이 넓은 草綠色 地平線, 아무리 變化하여 보았댔자 결국 稚劣한 曲線의 域을 벗어나지 않는 구름, 이런 것을 건너다 본다.

地球 表面的의 百分의 九十九가 이 恐怖의 草綠色이라라. 그렇다면 地球야말로 너무나 單調無味한 彩色이다. 都會에는 草綠이 드물다. 나는 처음 여기 漂着하였을 때 이 新鮮한 草綠빛에 놀랐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닳새가 못 되어서 이 一望無際의 草綠色은 造物主의 沒趣味와 神經의 粗雜性으로 말미암은 無味乾燥한 地球의 餘白인 것을 發見하고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절 作定으로 저렇게 퍼라나. 하루 圓終日 저 푸른 빛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푸른 것에 白痴와 같이 滿足하면서 푸른 채로 있다.

이윽고 밤이 오면 또 巨大한 구렁이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소리도 없이 잔다. 이 무슨 巨大한 謙遜이나.

이윽고 겨울이 오면 草綠은 失色하다. 그러나 그것은 襤褸를 갈기갈기 찢은 것과 다름 없는 醜惡한 色彩로 變하는 것이다. 한 겨울을 두고 이 荒漠하고 醜惡한 地平을 바라보고 자내면서 그래도 自殺 悶絶하지 않는 農民들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巨大한 天痴다. (3, 143)

화자인 나는 여기에서 시골 마을의 변화가 없는 무미건조한 초록일색의 풍경을 바라보고, “草綠色”이 “地球 表面的의 百分의 九十九”일 것으로 여기고 “恐怖”를 체험하고 있으며, 그것이 “無味乾燥한 地球의 餘白”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식의 지평이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됨과 아울러 거기에서 “恐怖”라는 실존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공포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접맥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화자인 나가 立體가 없기에 모양에 있어서, 그리고 색채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펼쳐진 “바닥 없는 莫大한 어둠”을 보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죽음충동을 갖는 「첫 번째 放浪」에서의 장면을 환기해 보자. 화자인 나는 「倦怠」에서 “끝없는 倦怠”가 “自意識過剩”(146)을 낳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무변화한 풍경이 유발하는 권태 속에서 의식이 내면으로 향할 때 자살 충동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겨울이 와서 “草綠”마저 “失色”하고 “荒漠하고 醜惡한 地平”만이 단조롭게 펼쳐질 때 자의식 과잉의 現代人이라면 자살을 생각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풍경을 통해

느끼는 화자의 실존의식이 인식 지평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 과학을 매체로 한 발상이되 지성적인 입장을 견지한 결과라 하겠다.

이 작품에서 화자인 나가 느끼는 권태는 궁극적으로 그날이 그날 같은, “凶猛한 刑吏처럼” 찾아오는 똑같은 내일들, 즉 자신의 삶을 향한 것으로 드러난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來日”(3, 153)들에서 느끼는 필자의 권태감이란 미래의 삶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시한부의 생애 그것과 무관할 수 없다 하겠다.

「夜色」은 화자인 나의 자살충동이 구체적이면서도 명시적으로 잘 드러난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서두를 통해 천문·지구적 실존의식을 엿볼 수 있다.

한꺼번에 이처럼 많은 별을 본 적은 없다. 어쩐지 공포감마저 불러일으킨다. 달 없는 밤하늘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귀기마저 서린 채 마치 커다란 음향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는 느낌이다. 마을 사람들의 식후의 한담을 멀리 들으며 때때로 **이 방대함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았다.**

과연 이 한 몸은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티끌만한 가치도 없다. 그런데도 이 야망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불안은 뭔가. 이 악예의 충동은 또 뭔가. 신은 이 이순간에 있어서 건강체인 나의 앞에선 단연 무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 신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신에 대해 저주의 마음 같은 것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 신을 이기겠다는 의욕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이 불안감은 끝없는 환희 속에서 신의 의지, 신의 제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3, 339)

필자는 달 없는 밤하늘의 “방대함” 앞에서 “공포”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포감이 “광대한 우주” 속의 ‘나’란 “티끌만한 가치”도 없다는 생각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식 지평이 우주로까지 열리면서, 그 속의 ‘나’의 가치를 사유함으로써 그에 따른 실존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특별하게 이러한 천문·지구적 실존체험에 이어 무신론적 세계관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이어지는 단락들에서의 자살체험에 대한 구체적 언급들을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자살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되, 그것이 인간의 부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倦怠」에서도 자의식 과잉의 현대인이라면

권태로운 풍경에 처하여 가질 수 있는 自殺 悶心을 농민들은 전혀 가질 수 없음을 언급한 바 있거니와, 「夜色」에서도 축생과 다른 생활을 하면서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3, 341)은 농민들과 자살에 대해 세세하게 생각하고 있는 화자 자신을 대조해 보고 있다. 여기에서도 천문·지구적 실존체험이 지성의 소산임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상의 시 몇 편을 ‘천문·지구적 실존(상상)’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習作쇼오원도우數點」에 주목해 보자. 기존 논의는 제목의 “쇼오원도우”를 이 시의 소재로 보고 전개되어 왔다. 그에 따라, 1연이 쇼오원도우 안의 마네킹을 노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⁷²⁾ 본고는 제목에 나타난 “쇼오원도우”가 이 시의 소재가 아니라, 이 시의 의도인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는 진열창 혹은 견본을 뜻하는 “쇼오원도우”가 이 시가 추구하는 바의 견본들을 제시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한다. 이 시는 이른바 ‘천문·지구적 실존’에 대한 추구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천문·지구적’인 것이란 거대하고 유장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제목 “習作쇼오원도우數點”이란 이러한 ‘천문·지구적 실존’을 진열창의 견본들처럼 제시해 보이고자 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이 시의 전문이다.

北을 향하여 南으로 걷는 바람 속에 멈춰 선 婦人

영원의 젊은 處女

地球는 그와 서로 스치 듯이 自轉한다

○

運命이란

人間들은 一萬年 후의 어느 해 달력조차 만들어 낼 수 있다

太陽아 달아 한 장으로 된 달력아

○

달밤의 氣圈은 冷蔵한다

肉體가 식을 대로 식는다

魂魄만이 달의 光度로써 충분히 燃燒한다. (1, 242)

72) 김윤식 〈해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어령의 논의를 인용하고 있다.

세 개의 연 모두에서 ‘천문·지구적 차원’으로 인식 지평의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연은 지구의 자전, 두 번째 연은 우주의 유장한 시간, 마지막 연은 달밤의 氣圈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다. 1연의 시상은 자전하는 둥근 지구라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인이 지구의 자전방향을 거스르면서 자전하는 지구와 스치듯이 움직인다면, 그를 통해 시간의 비가역성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婦人에서 젊은 處女로의 이행은 이와 같은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1연의 ‘지구적 상상’은 인생이 직면하게 마련인 시간의 비가역성을 거스르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겠다.⁷³⁾ 2연에서는 현재를 유장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력의 원리를 적용하여 “一萬年 후의 어느 해 달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은 우주적인 시간의 유장함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 보인다 하겠다. 그에 비해 지구가 일 회 공전할 동안의 시간인 일 년은 한 장의 달력에 모두 기록될 수 있을 만큼 짧은 시간인 것이다. 運命이란 우주적인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짧은 기간 동안 인간이 마주하는 존재함의 양태들인 바, 이 시는 우주적 차원의 실존에 기대어 運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연에서는 달밤의 氣圈이라는 우주적 범역 내에 존재하는 나의 실존을 육체와 혼백으로 양분하여 관조하고 있다. 싸늘해지는 육체와 달리, 연소하는 혼백이란 밤에 활발하게 움직이며 사유하는 뇌수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習作쇼오원도우數點」은 거대한 인식지평을 통해서만이 붙잡을 수 있는 ‘천문·지구적 실존’의 사례들을 진열창의 건본들처럼 세 마디의 시편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천문·지구적 실존’에 이어 이보다 넓은 범주라 할 수 있는 ‘천문·지구적 상상’의 면면들을 이상의 시뿐만 아니라 소설을 통해서 살필 수

73) 수필집에 수록된 작품들에서는, 작품의 화자가 봄을 잃은 상황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봄을 인생의 봄인 청춘의 의미로 새겨 볼 수 있겠는데, 「習作쇼오원도우數點」의 이 부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즉, “영원의 젊은 處女”를 통해 여성편력으로 점철된 ‘탕이적인’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있다. 수필집에 수록된 「自畫像(習作)」은 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시 「自像」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는 도무지 어느 나라인지 分間을 할 수 없다. 저기는 太古와 傳承하는 版圖가 있을 뿐이다. 여기는 폐허다. ‘피라미드’와 같은 코가 있다. 그 구녕으로는 ‘悠久한 것’이 드나들고 있다. 空氣는 褪色되지 않는다. 그것은 先祖가 혹은 내 前身이 呼吸하던 바로 그것이다. 瞳孔에는 蒼空이 凝固하여 있으니 太古의 影像의 略圖다. 여기는 아무 記憶도 遺言되어 있지는 않다. 文字가 닳아 없어진 石碑처럼 文明의 ‘雜沓한 것’이 귀를 그냥 지나갈 뿐이다. 누구는 이것이 ‘데드마스크’(死面)라고 그랬다. 또 누구는 ‘데드마스크’는 盜賊맞았다고도 그랬다.

죽음은 서리와 같이 내려 있다. 풀이 말라 버리듯이 수염은 자라지 않은 채 거칠어갈 뿐이다. 그리고 天氣 모양에 따라서 입은 커다란 소리로 외친다—水流처럼. (3, 193)

「自畫像(習作)」의 전문이다. 시 「自像」에서와 마찬가지로 데드마스크를 소재로 한 시라 하겠는데, 인용한 작품에서는 「自像」에 비해 ‘천문·지공적 상상’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⁷⁴⁾ 데드마스크의 코,瞳孔, 귀, 수염, 입에 대해 차례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太古, 蒼空, 天氣로까지 크게 확장된 인식 지평이 개제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코”의 “구녕으로는 ‘悠久한 것’이 드나들고”, “瞳孔”에는 “太古의 影像의 略圖”라 할 수 있는 “蒼空이 凝固”되어 있다. 죽음이 서리처럼 내린 “수염”은 자라지 않으며, “입”은 “天氣 모양에 따라서” 커다란 소리로 외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데드마스크의 “귀”로는 “文明의 ‘雜沓한 것’”이 “그냥 지나갈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데드마스크는 太古로 이어지는 시간과 蒼空 및 天氣로 확장되는 공간을 품고 문명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천문적 상상’을 통해 화자가 시공간적 인식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죽음을 초월적인 관점에서 관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74) 참고로 시 「自像」의 전문을 인용한다. [인용] 여기는어느나라데드마스크다. 데드마스크는盜賊맞았다는소문도있다. 풀이北極에서破瓜하지않던이수염은絶望을알아차리고生殖하지않는다. 千古로蒼天이허방빠져있는陷穽에遺言石碑처럼은근히沈沒되어있다. 그러면이결을生疎한손짓발짓의信號가지나가면서無事히스스로와한다. 점잖던內容이이래저래구기기사작이다. (1, 94)

한편 데드마스크가 묘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위치가 주목된다. “여기”, “거기”, “그것”, “이것”과 같은 지시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데드마스크와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는가 하면, 먼 곳에 자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죽음을 응시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화자는 죽음을 가깝게 인식하는가 하면, 먼 것으로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상 문학에 내재하는 이질적인 자아상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논의를 통해, 죽음에 대해서 이와 정면 대응하는 자아상이 존재하는가 하면, 이를 회피하는 자아상이 존재함을 규명한 바 있다.

이제 필자의 기존논의의 맥락 내에서 이상의 시 및 소설에 나타난 ‘천문·지구적 상상’을 정리해 보겠다. 이상의 시 「UE URINE」(1, 123)에 대한 필자의 기존 논의에 주목해 보자. 이 시는 시간을 분절하여 요일을 정하는 것이 서구의 기독교 문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여급의 생애적인 생리주기까지를 이에 맞추는 식으로 맹목적으로 외래적인 것을 추수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⁷⁵⁾ 여급의 MENSTRUATION 시기가 日曜日에 맞추어진 것을 들어, “太陽은理由도없이사보타아지를恣行하고 있는”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는바, 이는 ‘천문적 상상’에 기초한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소설에 대한 기존 논의를 토대로 이상 소설에 나타난 ‘천문·지구적 상상’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다. 필자는 기존 논문에서 「童叢」(1937. 2, 《조광》)을 논하면서, 이 작품에서 ‘유구한 시간 속의 나’와 ‘정경 속의 나’가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 전자를 통해 ‘천재’의 형상을, 그리고 후자를 통해서 ‘당아’의 형상을 살피었는데, 시간을 이처럼 전체로서의 ‘유구한 시간’과 하나의 ‘정경 속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천문적 상상’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동일한 논문에서 「終生記」(1937. 5, 《조광》)의 서사가 봄 서사와 가을 서사로 짜여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필자는 이 소설이 동일한 총량의 삶을 봄서사와 가을서사를 통해 그리되, 전자를 통해서 ‘당아’의 형상을 그리고 후자를 통해서 ‘천재’의 형상을 성격화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⁷⁶⁾ 이처럼 동일한 총량의 삶을

75) 김은경, 「李箱 詩에 나타난 主體 형상의 기호학적 분석 - 잉여/결여(▽△) 및 발산/수렴(凹凸)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살아가되, 실체로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나들을 각기 봄과 가을을 배경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발상 또한 ‘천문적 상상’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수학적/과학적 지식의 적용

인간의 평상적 인식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아주 미세한 것들, 아주 거대한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상의 작품들에 나타난 ‘천문·지구적 상상’은 우리의 평상적 인식의 지평을 넘어서는 아주 거대한 것들에 대해 사유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할 수 있겠다. 그것이 실존체험이든, 상상이든 거기에 과학적 원리가 개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이를 과학을 매체로 한 지성적 글쓰기의 범주에 놓고 살피고 있다.

이외에도, 이상의 작품집에는 수학적/과학적 지식을 그의 문학의 원천으로 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본고의 일차적 논의 대상인 수필집에서는 「失樂園」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月像〉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앞에서 이 작품을 플라톤의 이데아설과 연관 지어, 이 작품에서 초월적인 참된 실재(자아상)에 대한 모색이 드러남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이 과학의 원리를 그 바탕에 두고 있기에 여기에서 잠시 거론기로 한다. 이 작품이 달의 추락과 새로운 달의 부상에 대한 기대감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게 될 과학의 판타지화와 일견 접맥되는 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빛과 그림자의 관계’라는 과학에 기초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절에서 주목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처음에 화자인 나는 “달이 있는 反對方向으로 걷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그림자를 쫓는 행보를 지속하게 된다. 그런데 달이 추락하고 새로운 달이 “내 앞”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나는 내 前方에 疾走하는 내 그림자를 追擊하여 앞설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발상을 통해

76) 김은경, 「이상 소설 연구 - ‘천재’와 ‘탕아’의 형상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이 시는 참된 실재(자아상)에 대한 모색이라는 주제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적·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글쓰기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상의 시라 할 수 있다. 필자의 기존 논의에 기초하여 이상의 시 작품들이 과학을 매제로 하여 창작된 것임을 정리해 보겠다.⁷⁷⁾

〈烏瞰圖〉: 「詩第四號」「詩第八號 解剖」「詩第十五號」

〈易斷〉: 「明鏡」

〈危篤〉: 「賣春」

〈異常한 可逆反應〉: 「異常한 可逆反應」「破片의 景致」「▽의 遊戲」

〈烏瞰圖〉: 「神經質으로 肥滿한 三角形」

〈三次角設計圖〉: 「線에 關한 覺書 1」「線에 關한 覺書 2」「線에 關한 覺書 3」「線에 關한 覺書 4」「線에 關한 覺書 5」「線에 關한 覺書 6」「線에 關한 覺書 7」

〈建築無限六面體〉: 「一九三一年(作品第一番)」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묶고 있는 제목들, 즉 〈烏瞰圖〉, 〈異常한 可逆反應〉, 〈三次角設計圖〉, 〈建築無限六面體〉 등에 주목해 보자. 이들은 이상의 시 세계와 수학 및 과학 간의 관련성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인용단락은 여기에서 간략히 거론하게 될 시들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보다 깊이 있게 이상 시의 창작 원리로서 과학을 매제로 한 방법론이 작용하고 있음을 살피기 위해서는 필자의 이상 시에 대한 기존 논문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필자는 기존 논문을 통해 △▽(잉여/결여) 및 凹凸(발산/수렴)을 기호를 양측으로 한 이상 시의 언어체계를 밝힌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여기에 수학적인 발상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 언어체계를 ‘數의 언어학’이라 칭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상 문학이 수학을 포함한 과학을 매제로 한 방법론적 글쓰기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논의의 핵심적 사항들을 정리해 보이겠다.

먼저 시 관련 기존 논문의 부제에 나타나는 두 쌍의 기호들이 어떤 원리

77) 2)항의 이하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김은경, 「李箱 詩에 나타난 主體 형상의 기호학적 분석 - 잉여/결여(▽△) 및 발산/수렴(凹凸)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에 의해 언어체계로서 구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triangle\nabla$ 의 기호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시로는 「破片의 景致」, 「 ∇ 의 遊戲」, 「神經質의으로 肥滿한 三角形」, 「線에 關한 覺書 7」 등이 있는 바, 이 가운데 「線에 關한 覺書 7」에 대한 분석을 통해 $\triangle\nabla$ 라는 비-언어적 기표의 의미소로서 ‘계량, 정도, 모양’ 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triangle 및 ∇ 이 각기 상체가 비만한 경우와 하체가 비만한 경우를 계량적·도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형이하적 및 형이상적 주체형상을 뜻함을 논의하였다. 필자는 $\triangle\nabla$ 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작품들에서 출발하여 이상 시 전반을 통해, 두 개의 주체 형상이 상호 단절되어 있으며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살핀 바 있다.

한편, \square 의 기표가 직접 등장하는 시로는 「線에 關한 覺書 2」, 「線에 關한 覺書 6」 등이 있는 바, 여기에서 출발하여 「線에 關한 覺書 3」, “患者의容態에關한問題”라는 부제가 붙은 鳥瞰圖 「詩第四號」 등의 시에 존재하는 수학·과학의 원리들에 주목하여 두 개의 기표가 함의하는 의미소들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square (발산·수렴)의 기호학과 관련된 ‘數’의 언어학은 산술연산에 의한 數의 어미변화, 숫자 연상 배열의 시각적 효과, ‘4s’의 도상성 등으로 구성된다.⁷⁸⁾

△: 정역학(상수화), 하나의 중심, 국소적 집중

□: 동역학(변수화), 중심 부재, 전체적 확산

이러한 이상 시 나름의 언어체계를 이상 시 전반으로 확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필자는 주체형상이 시간-내-존재이자 세계-내-존재로서 동역학적임을 논의하는 것을 기존 논문 내용의 일부로 삼고 있다.

이상 시 창작이 과학을 매체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언어체계 자체라 할 수 있겠는데, 기존 논문은 그 밖의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도 이상의 수학·과학에 기초한 방법론적 글쓰기 양상을 들여다

7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기존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자세한 정리는 생략한다. 김은경, 「李箱 詩에 나타난 主體 형상의 기호학적 분석 - 잉여/결여(∇ \triangle) 및 발산/수렴(\square)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볼 수 있도록 한다. 그 가운데 시간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시편들로 파악한 〈烏瞰圖〉「詩第八號 解剖」 및 「詩第十五號」, 「明鏡」, 「異常한 可逆反應」 등에 대한 논의가 여기에서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편들에 대한 기존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서 거기에 과학이 개제하고 있음을 검토해 보자. 거울을 이용하여 거울속나를 분리코자 하는 두 개의 실험을 소재로 하고 있는 烏瞰圖 「詩第八號 解剖」에 대한 논의에서는 거울안팎의나들이 시간적으로 공속하기에 분리 불가능하지만, 시간성을 배제했을 때 분리 실험에 성공하게 되는 상황에 주목하여 이상 시를 통해 주체분열을 논의하기보다 비가역적인 시간성 내에서 상이한 주체 형상들이 ‘선택적’으로 발현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거울과 꿈을 소재로 한 「詩第十五號」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편, 「明鏡」 「異常한 可逆反應」은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明鏡」에서는 거울속나가 보낸 시간을 거울밖나가 소급하여 보낼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거울안팎의 나들이 ‘선택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살폈다. 그리고 「異常한 可逆反應」에서는 제목의 可逆反應이 시간의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과거의나나 현재의나에 의해 새롭게 구성될 수 있음을 노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들 시편들은 거울의 원리와 비가역적인 시간-내-존재로서의 주체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에 과학적 지식을 매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앞에서 살핀 烏瞰圖 「詩第八號 解剖」, 「線에 關한 覺書 3(患者의 容態에 關한 問題)」는 모두 의학적인 발상을 담고 있는 시편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建築無限六面體〉에 포함된 「一九三一年(作品第一番)」에서도 의학적 소재가 등장한다. 이 시는 시적화자가 신봉하고 있는 無機體論을 비판하기 위해서 의생명학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시의 전개과정에서 남녀 간의 스캔들과 그들이 낳은 것으로 암시되는 아이의 존재가 서사적으로 드러나는 데, 이를 시적 화자가 신봉하고 있는 “情虫의 一元論”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악하였다. 無機體論, 唯物論, 有機質의 分離實驗 등의 용어들이 나타나는 이 시 또한 과학적인 지식을 매제로 하여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⁷⁹⁾

마지막으로, “싸이폰 작용”⁸⁰⁾을 시의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매체로서 활용하고 있는 「賣春」에 대한 논의를 점검해 보자. 필자는 기존 논문에서 이 시가 △적 주체형상과 ▽적 주체형상의 두 주체형상이 이분법적 도식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 압력의 차이를 이용해 거꾸로 된 U자 모양 관의 양측으로 물이 옮겨지는 싸이폰 작용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이 두 주체형상이 이성적임과 감정적임의 정도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여줌과 아울러, 양자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노래하고 있음을 살폈다. 이 시 또한 “싸이폰 작용”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사상 전개의 주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상 필자의 기존 논문을 통해, 이상 시가 수학을 포함한 과학을 매체로 창작되고 있음을 들여다보았다.⁸¹⁾ 필자는 기존 논문에서 앞에서 정리한 이상 시 나름의 언어체계가 이상 시 전반을 통해 일정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음을 논의한 바 있거니와, 그것이 수학적·과학적 원리지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을 매체로 한 이상 문학의 범위는 앞에서 정리한 작품들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2. 반-지성적인 입장에서 글쓰기

이상은 「失樂園」에 포함된 시 형식의 작품인 〈少女〉, 「얼마 안되는 辨解」, 「獐의 記(作品 第二番)」 등을 통해 그의 글쓰기가 의도적으로 반-지성적 입장을 취하는 방향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두 작품에서는 “知識”과 “法律”을 버리기가 그의 글쓰기와 연관됨을 직접적으로 보여

79) 이 시는 다음 절에서도 살피게 되겠는데, 과학의 관타지화 양상 또한 나타내 보인다.

80) 사이폰(siphon)이란 액체를 일단 높은 곳으로 올렸다가 낮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곡관(曲管)을 의미한다. 사이폰에 의한 액체의 유하(流下) 현상을 사이폰 작용이라 한다. NAVER 지식사전.

81) 여기에서의 논의는 이미 발표한 논문을 본고의 의도에 맞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기존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주고 있다. 「猗의 記(作品 第二番)」에서는 반-지성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지성과 반-지성을 겸비하여 양자를 지양하는 글쓰기가 이루어짐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 작품들을 통해, 모더니스트 이상의 글쓰기가 주지주의의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반-지성적인 방향에서도 이루어짐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지성이 철저하게 지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양자 모두 과학을 매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먼저 〈少女〉, 「얼마 안되는 辨解」 두 작품을 통해 반-지성적 글쓰기 또한 이상 문학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거론하겠다. 〈少女〉에서 少女는 咯血을 하고 “視覺”만을 남긴 채 “許多한 讀書”를 하는 존재로서 이상 자신과 동일시되는가 하면, 그의 글쓰기를 추동하는 일종의 뮤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려진다. 관련되는 내용을 인용해 본다.

少女는 短艇 가운데 있었다 一群衆과 나비를 避하여. 冷却된 水壓이—冷却된 유리의 氣壓이 少女에게 視覺만을 남겨주었다. ① 그리고 許多한 讀書가 始作된다. 덮은 冊 속에 或은 書齋 어떤 틈에 곧잘 한 장의 ‘얇다란 것’이 되어 버려서는 숨고 한다. ② 내 活字에 少女의 살결 内음새가 섞여 있다. 내 製本에 少女의 인두 자국이 남아 있다. 이것만은 어떤 強烈한 香水로도 헛갈리게 하는 수는 없을—

사람들은 그 少女를 내 妻 라고 해서 非難하였다. 듣기 싫다. 거짓말이다. 정말 이 少女를 본 눈은 하나도 없다. / 그러나 少女는 누구든지의 妻가 아니면 안된다. ③ 내 子宮가운데 少女는 무엇인지를 낳아 놓았으니—그러나 나는 아직 그것을 分娩하지는 않았다. ④ 이런 소름끼치는 知識을 내어 버리지 않고야—그렇다는 것이—體内に 먹어들어오는 鉛彈처럼 나를 腐蝕시켜 버리고야 말 것이다.

⑤ 나는 이 少女를 火葬해 버리고 그만두었다. 내 鼻孔으로 종이 탈 때 나는 그런 内음새가 어느 때까지라도 低徊하면서 사라지려 들지 않았다. (3, 189-190)

①, ②, ③을 통해 ‘소녀’가 “許多한 讀書”를 통해, 즉 지성을 쌓아 ‘나’의 문학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존재로 등장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④의 “이런 소름끼치는 知識”은 ①, ②, ③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함과 아울러, ④ 전체의 문맥은 ‘나’가 지성적인 글쓰기를 추동하는 소녀의 편에서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나는 ⑤에서 나의 子宮 안에 무엇인가를 分娩

해 놓은 소녀를 화장해 버리고 만다. 이는 나가 소녀가 의미하는바 지성에 기초한 글쓰기의 열매를 불태워 포기하였음을 의미한다 하겠다.⁸²⁾

한편, 앞의 II장 2절에서 「얼마 안되는 辨解」를 이루는 세 개의 마디 글들 가운데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의 일부분을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본 항의 논의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피지 않은 세 번째 마디 글을 주목해 보겠다.

野蠻스런 法律 밑에서 舉行되는 査閲, 거기에는 역시 한 사람의 落第者를 내놓는 일은 없었다.

그는 아득하였다.

그의 腦髓는 거의 生殖器처럼 興奮하였다. 당장이라도 爆裂할 것만 같은 疼痛이 그의 中軸을 엄습하였다.

이것은 무슨 前兆인가?

그는 조용히 四角진 달의 採鑛을 주워서, 그리고는 知識과 法律의 창문을 내렸다. 採鑛은 그를 싣고 빛나고 있었다.

그의 몇 億의 細胞의 間隙을 通過하는 光線은 그를 붕어와 같이 아름답게 하였다.

瞬間, 그는 제풀로 非常하게 잘 製鍊된 寶石을 교묘하게 分娩하였던 것이다. (3, 294)

세 번째 마디 글은 “문제의 그 별”을 “鑛山”(3, 293)과 동일시하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글의 전체적 흐름은, “野蠻스런 法律” 밑에서 운영되는 그 鑛山(“문제의 그 별”)이 ‘그’에게는 “免許狀까지도 拒絕”하지만, ‘그’가 “知識과 法律의 창문”을 내렸을 때, “제풀로 非常하게 잘 製鍊된 寶石을 교묘하게 分娩”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문제의 그 별=광산〉을 ‘문학’으로 본다. 그리고 “野蠻스런 法律”, “知識과 法律”을 초자아와 무관하지 않은 ‘지성’을

82) 수필집에 수록된 다른 작품 「女像」에 등장하는 순결한 處女(少女)의 ‘소녀’와 결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이 김기림에게 쓴 편지인 「私信 七」을 통해, 그 자신이 19세기적 도덕성을 내비치고 있는 「危篤」과 같은 시편들을 창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소설을 쓸 의향을 보이고 있음을 상기해 보자. 이른바 ‘少女’가 뮤즈로 나선 이상의 글쓰기란 그의 초자아와 직결되는 20세기 초 지성인의 내면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른바, 이 세 번째 마디 글은 그와 같은 ‘지성’을 내려놓았을 때, “寶石”과 같은 문학의 열매를 낳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한편, 「獺의 記(作品 第二番)」를 통해서는 화자가 지성적 글쓰기와 반-지성적 글쓰기를 겸비함으로써 양자 간의 변증법적 지양을 모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記一, 記二, 記三, 記四의 네 마디로 전개되는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記一: 獺은 “주먹을 쥔채 잘려 떨어진 한 개의 팔”을 물고 오는데, 그 주먹 속에서 나온 것은 R의사에게 주어진 “犧牲動物供養碑 除幕式紀念” 勳章임. 나의主治醫 R醫學博士의 二元論的 生命觀, 술한 개들을 解剖臺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는 서양의학의 방법론 등에 대해 비판함.

記二: 나는 獺과 더불어 玩賞花草種子를 사기 위하여 花園市場에 감. 獺은 날카로운 嗅覺으로 播種後의 成績을 소상히 豫言하는데, “大理石 模造인 種子 模型”만이 獺의 嗅覺에 합격함.

記三: 나의 腦髓가 擔任 支配하는 사건의 大部分을 獺의 位置에 貯藏함.

記四: 나와 獺의 동일시 → 骸骨, 墓地, 영원한 景致에 대해 생각함 → 여자와의 대면 → 帽子가 나의 머리에 있지 아니하듯 나의 思想이 내 머리에서 사라지는 상황을 염려함 → 성 행위의 순으로 전개됨.

이러한 전개과정을 통해 이 작품이 노정하는 하나의 지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지성에 대한 비판, 반-지성과의 조화, 그리고 반-지성으로의 경도가 그것이다. 記一에서 해부라는 실증적인 방식으로 서양의학이 진행되는 점, 인간의 신체를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진단하는 점 등을 들어 근대적인 지성을 비판하고 있다 할 수 있다. 記二와 記三에서는 화자인 나가 記一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반-지성을 수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관련되는 내용을 인용해 본다.

記二

(…전략…)

知識과 함께 나의 病집은 깊어질 뿐이었다.

하루 아침 나는 食事 定刻에 그냥 잘못 假睡에 빠져드려갔다 틈을 놓치려 들지 않는 獺은 그 金屬의 꽃을 물어선 나의 半開의 입에 떨어뜨렸다 時間의 습관이 食

事처럼 나에게 眼藥을 무난히 넣게 했다

病집이 知識과 中和했다—세상에 巧妙하기 짝이 없는 治療法—그후 知識은 급기야 左右를 兼備하게끔 되었다

記三

(…전략…)

나의 腦髓가 擔任 支配하는 사건의 大部分을 나는 獺의 位置에 貯藏했다—冷却되고 加熱되도록—

나의 規則을—그러므로—리트머스紙에 썼다

배—그 속—의 結晶을 加減할 수 있도록 小量の 리트머스液을 나는 나의 食事に 곁들일 것을 잊지 않았다

나의 배의 發音은 마침내 三角形의 어느 頂點을 正작하게 출발하였다 (3, 317-318)

記二에서는 獺가 가장 많은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한 “大理石 模造인 種子 模型”에서 “金屬의 꽃”이 피어나는데, 이러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에서 화자인 나는 “知識과 함께 나의 病집은 깊어질 뿐”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獺가 그 “金屬의 꽃”을 나의 “半開의 입”에 떨어뜨린 결과, “病집이 知識과 中和”하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화자인 나가 知識으로 인한 병을 앓는다는 것은 “大理石 模造인 種子 模型”에서 가장 많은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獺의 예측에 맞서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으며, 황의 보살핌 하에서 “病집이 知識과 中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황의 생각을 수용하기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하겠다. 이 작품은 이른바 獺가 대변하는 반-지성과 나의 知識이 뜻하는 지성이 대결한 결과 “知識은 급기야 左右를 兼備”하는 경지, 즉 지성과 반-지성을 모두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記三에서는 상반되는 방향성을 갖는 지성과 반-지성이 변증법적 지양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인 나가 모든 것을 獺의 입장에서 저장한다는 것은 반-지성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량의 리트머스 紙를 식사에 곁들이고 있음을 통해 지성적 입장 또한 놓지 않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리트머스 紙를 통해 반-지성과 지성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행의

“나의 배의 發音은 마침내 三角形의 어느 頂點을 정직하게 출발”하였다는 것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하겠다. 본고는 이를 통해 화자인 나가 지성과 반-지성 간의 변증법적 지양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⁸³⁾

지금까지 이상의 수필집에 수록된 세 편의 작품들을 통해 모더니스트 이상이 지성뿐만 아니라 반-지성을 그의 문학과 접맥코자 한 점을 엿보았다. 실제로, 이상의 시 작품들에 빈번히 나타나는 과학의 판타지화 양상들을 통해, 이러한 의도가 그의 문학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판타지화 양상이 “과학적 논리성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에 기초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매제로 한다고 볼 수 있기에 이 글에서는 이를 IV장 2절 내에서 반-지성적 글쓰기의 범주에 놓고 살피기로 한다.⁸⁴⁾ 이상의 작품집들 내에서 생물학과 의학의 견지에서 환상성을 내포한 작품들이 발견되는데, 먼저 수필집에서는 「얼마 안되는 辨解」, 「獺의 記(作品 第二番)」를 통해 이를 살필 수 있다.

「獺의 記(作品 第二番)」에서는 앞에서 정리 인용한 바와 같이, 반-지성적인 것에 대한 개방적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大理石 模造인 種子 模型”에서 “金屬의 꽃”이 피어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동일한 발상을 시 「一九三一年(作品第一番)」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인 나는 “大理石發芽事件”(1, 236)에 직면하게 되는데, 필자는 이 부분을 다룬 기존 논문에서 이 사건이 方程式無機論의 熱烈한 信奉者인 나의 무기체론을 공격하는 사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은 이처럼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환상성을 그의 작품에 내포하고 있다.

「얼마 안되는 辨解」에서 또한 유사한 양상들을 살필 수 있다. 그 전반부

83) 그러나 記四의 내용을 통해, 나가 獺이 대변하는 반-지성에 경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과정을 앞에서 정리해 보았는데, 나는 나의 思想, 즉 지성을 모두 잃고 心理學을 포기한 가운데 성욕에 몸을 맡기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질적인 두 개의 자아상 가운데 삶의충동과 관련을 맺는 탕아의 형상 혹은 △적 자상의 발현되고 있다 하겠다. 이는 이상의 소설문학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회피로써의 삶’의 양태라 하겠다.

84) NAVER 지식백과. 이상의 작품들에 나타난 환상성은 이런 점에서 SF적이라고 할 수 있다.

를 앞에서 정리한 바 있는 이 작품의 두 번째 마디에서는, 子宮擴大模型이 등장한다. “세상에 다시 없는 아름다운 接木을 實驗하기 위해서” ‘그’의 肋骨을 樹莖에 挿入하지만,⁸⁵⁾ 그 실험에 실패한 이후, ‘그’는 子宮擴大模型 속으로 들어간다. 삶의충동과 죽음충동이 교차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양자 모두 죽음충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후자에 주목해 보자.

子宮擴大模型의 正門에서 그는 父親을 扮裝하고 闖入하였다. 誕生日을 延期하는 目的을 가지고—

그리하여 그 模型의 正門 뒤에 뒷문이 있었던 것을 누가 알았던 말인가.

그는 뒷문의 열쇠를 놓아 둔 채로 뒷문으로 나왔다. 거기는 渺茫한 最後의 終焉이었다.

그는 後悔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러나 여전히도 그 風景이 없는 世界의 風景을 要求하지 않는 不滅의 法律은 그에게 或種의 宗教的 諦念을 가지고 왔다.

永遠히 連結된 前面의 方向을 그는 오히려 기뻐하였다.

하나의 數學, 꺾이나 짧은 數字가 그를 煩悶케 하는 일은 없을까?

그는 한 장의 거울을 設計하였다. 그리고 物理的 生理手術을 그는 無事히 畢了하였다.

記憶이 關係하지 않는 그리고 意志가 音響하지 않는 그 無限으로 通하는 方丈의 第三軸에 그는 그의 安住를 發見하였다.

‘左’라는 公平이 이미 그로 하여금 ‘부처’와도 絶緣시켰다.

이 가장 文明된 軍備, 거울을 가지고 그는 과연 믿었던 安住를 다행히 享受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그것은 子宮擴大模型의 뒷문이 閉鎖된 후의 反響이 없는 問題에 불과한 것이다. (3, 293)

인용문에 따르면 ‘그’가 子宮擴大模型으로 들어간 것은 자신의 탄생일을 늦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드러난다. 전후 문맥을 볼 때, 이는 ‘그’의 삶이 시한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즉 단명함에 대한 예측이 탄생일을 늦추려는 목적을 낳은 것이다. 그런데, 子宮擴大模型 속으로 들어간 이후 상황은 화자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가 보면, 正門으로 들어간 ‘그’는 뒷문을 발견하고 그

85) 異種 간의 접목 또한 이상 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과학의 판타지화 양상이다. 이후의 단락에서 이에 대해서도 상론할 것이다.

곳에 머무는데 뒷문이 폐쇄되는 상황에 처한다.⁸⁶⁾ 正門이 탄생 즉 생명으로 통하는 문이라면, 뒷문은 인용문의 문면을 통해 볼 때 죽음으로 이어지는 문임을 알 수 있다. 子宮擴大模型의 뒷문 밖에서 ‘그’는 “記憶이 關係하지 않는 그리고 意志가 音響하지 않는 그 無限으로 通하는 方丈의 第三軸”에서 그의 安住를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어지는 문장은 그곳이 ‘부처’와도 절연된 左인 것으로 드러난다. 앞의 「무제(1)」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도 살핀 바 있듯이 左란 終生과 관련을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⁷⁾ “前面의 方向”이 “永遠히 連結”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뒷문 밖에 “方丈”을 마련하였을 때 뒷문이 이미 폐쇄된 상황은 ‘그’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방향을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얼마 안되는 辨解」의 子宮擴大模型에 대한 이와 같은 단상은 생물학적 지식에 기초한 판타지라 하겠는데, 이를 통해 이상은 대체로 죽음충동을 내비치고 있다. 일련의 시 작품들을 통해 유사한 양상을 살필 수 있다. 鳥瞰圖 「詩第九號 銃口」(1, 39), 「詩第十一號」(1, 43), 「詩第十三號」(1, 46), 그리고 「沈沒」(1, 78)에서는 상호 이반하는 유기체(모체)와 기관의 관계를 통해 죽음충동과 삶의충동 간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생물학적 발상에 기초한 판타지가 드러남을 엿볼 수 있다.⁸⁸⁾

한편, 鳥瞰圖 「詩第七號」(1, 33), 「火爐」(1, 55), 「且 8氏의 出發」(1, 178) 등에서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얽매인 화자의 형상을 식물적인 삶으로서

86) 인용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正門 뒤에 뒷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는 “뒷문의 열쇠를 놓아 둔 채로 뒷문”으로 나온다. 2) 子宮擴大模型의 뒷문으로 나온 곳에서, 記憶이 關係하지 않는 그리고 意志가 音響하지 않는 그 無限으로 通하는 方丈의 第三軸에 그는 그의 安住를 發見하는 物理的 生理手術을 필요한다. 3) 子宮擴大模型의 뒷문은 이미 閉鎖되었다.

87) 여기에서 앞의 「무제(1)」에 대한 앞에서의 논의를 환기해 보자. 이 작품에 대한 논의에서 左가 종생의 편이라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뒷문 밖이 “風景이 없는 世界”라는 점 또한 화자의 시도가 죽음충동과 유관하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88) 필자의 기존 논문 가운데, 이상 글쓰기의 기전을 살피고 있는 부분을 통해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환상성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김은경, 「李箱 詩에 나타난 主體 형상의 기호학적 분석 - 잉여/결여(▽△) 및 발산/수렴(凹凸)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種間 변이 혹은 교접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 鳥瞰圖 「詩第七號」와 「且 8氏의 出發」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논한 바 있는데, 특히 후자에서는 捲奉에서 삭이 돋고, 사막에서 珊瑚(동물)가 식물로서 자라는가 하면, 且 8氏가 隱遁植物과 교접하여 그 隱遁植物에 꽃을 피우는 존재로서 그려지는 등 환상성이 두드러진다 하겠다. 鳥瞰圖 「詩第七號」에서는 가난한 가족의 생계비를 매달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地平에植樹되어서는起動할수없”는 것으로서 노래하고 있다. 「火爐」 또한 극한의 추위를 맞 보아야 하는 가난한 가정을 배경으로 전개되는데, 화자인 나에게서 가지가 돌아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들 작품은 가족 부양의 책임 때문에 이상 실현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식물적인 것으로서 나타내 보인 것이라 하겠는데,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판타지가 작동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 시집에서는 의학과 관련된 여러 편의 시들을 살필 수 있는데,⁸⁹⁾ 그 가운데 「興行物天使」, 「一九三一年(作品第一番)」 두 편의 시를 통해서도 의학 지식에 기초한 환상성을 엿볼 수 있다. 「興行物天使」에서는 整形外科 수술을 받은 여자의 눈이 北極으로 간다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의학을 바탕으로 한 환상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를 통해 국부적 진료에 치중하는 근대 의학과 외래적인 것의 비주체적 수용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논한 바 있다. 「一九三一年(作品第一番)」에서도 유기체로서의 신체 인식에 기초한 환상성이 드러난다.⁹⁰⁾ 기존 논문에서 필자는 이를 통해서도 근대 서양 의학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입장을 읽고 있다.

89) 다음은 의학을 소재로 하거나, 의학을 비판의 대상으로 한 시편들로서 다음이 그 에 해당한다. 鳥瞰圖 「詩第八號 解剖」(1, 35); 「內科」(1, 225); 「BOITEUX·BOITEUSE」(1, 110); 鳥瞰圖 「詩第四號」(1, 25); 「興行物天使」(1, 142); 「一九三一年(作品第一番)」(1, 236)

90) 관련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 (一) 나의 肺가 盲腸炎을 앓다. 第四病院에 入院. 主治醫盜難——亡命의 소문나다. / 철늦은 나비를 보라. 看護婦人形購入. 模造盲腸을 制作하여 한 장의 透明琉璃의 저편에 對稱點을 만들다. 自宅治療의 妙를 다함. / 드디어 胃病併發하여 顔面蒼白, 貧血. (二) 心臟의 去處不明. 胃에 있느니, 가슴에 있느니, 二說紛紛하여 견잡을 수 없음. (…후략…) (1, 236)

본 절의 논의는 이상이 반-지성적 입장에서 문학하기를 의도적으로 표방하고 있음을 밝힌 점, 이를 그의 작품들과 접맥하여 살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살핀 바와 같이 SF적 면모를 보이는 판타지를 수용하는 글쓰기가 IV장 1절에서 살핀 지성적 입장의 글쓰기와 대척된다기보다는 이 또한 본고가 이상의 방법론적 문학하기의 양상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과학을 매체로 한 글쓰기의 또 다른 방식인 것으로 본다. 생물학적·의학적 발상이 이러한 판타지를 이루는 주요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음은 시한부의 생애를 살다 간 이상의 전기적 삶과 관련이 깊다 하겠다.

V. 결론

본고는 이상 문학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그의 시·소설·수필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글은 필자가 기존에 발표한 이상의 시 및 소설에 대한 두 편의 논문을 기초로, 이상 수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이상 문학의 전체상을 조망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이상 문학을 추동하는 원리는 바로 피비우스의 띠처럼 맞물리는 삶의충동 및 죽음충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삶의충동이 죽음충동에 이어지며, 죽음충동은 다시 삶의충동에 자리를 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상이한 두 충동 간의 길항이 이상 문학을 이끄는 주요한 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실재하는 이상의 전기적 삶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가운데, 수필과 시, 소설 등의 이상 문학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II장에서는 기존 논문들을 통해 논의한 바 있는 두 개의 자아상을 삶의충동 및 죽음충동과 연관 지어 보았다. 여기에서는 천재의 형상 및 형이상적(▽적) 자아상이 죽음충동과 보다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았으며, 탕아의 형상 및 형이하적(△적) 자아상은 삶의충동과 밀접하다는 결론을 맺어 보았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두 개의 충동을 이질적 두 개의 자아상과 결부함에 있어서 이원론적 단정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

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두 개의 충동은 상호 길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II장 1절에서는 단절의 역사관을 내포하는 당아의 형상이 삶의충동과 결부되는 데에 존재하는 역설이 그 삶의충동이 죽음충동으로 수렴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을 맺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죽음충동을 갖거나 죽음에 대한 실존체험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심리상태와 이반되게 작동하는 생리상태(성욕)을 들어 삶의충동이 △적 자아상과 유관함을 살폈다. II장 2절에서는 연속의 역사관을 갖는 천재의 형상이 죽음충동과 결부되는 데에 마찬가지로 역설이 존재함에 주목하였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첫째, 가난한 가족에 대한 생각이 죽음충동을 낳고 있는 점에 대해 고구해 보았다. 그 결과 죽음충동이 장자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즉 초자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충동이 천재의 형상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죽음충동이 문학의 열매를 맺는데 있어서 건인차 역할을 하고 문학에 대한 열정은 삶의충동을 낳는다는 사실로서 그 역설을 해명해 보았으며, 죽음충동이 ▽적 자아상과 친연성을 갖는다는 점을 논하였다.

III장에서는 삶의충동과 이상의 문학하기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수필집에 수록된 작품들, 특별히私信들을 통해 잘 알려진 대로의 ‘이상(李箱)’의 면모와 구별되는 자연인 김해경(金海卿)의 내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이 ‘작가-주인공’으로 그의 문학 속에 등장하곤 하는 바로 그 인물이라면, 이 글을 통해 필자가 만난 또 다른 존재는 이와 구별되는 여러 측면들을 엿보이기에 ‘김해경’으로서 구분하여 보았다(III장 1절). 그와 같은 구분의 직접적 근거로 ‘김해경’을 논할 수 있는 작품들에서는 실존인물과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기에 허구를 수용하는 문학적 절차를 거친 다른 자료들과 차별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들을 통해 인간 ‘김해경’이 전래의 도덕성과 가족에 대한 책무 등에 있어서 초자아를 강하게 내비치는 존재, 이상 실현을 위해 동경행을 갈구하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마지막까지 간직한 존재, 그리고 생을 찬미한 존재였음을 논의하였다. 이는 III장 2절의 ‘회피로써의 삶’을 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III장 2절에서는 여러 편의 작품들에서 자신의 삶이 “회피”임을 주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와 같은 회

피가 죽음과 정면대응하기로부터의 회피, 이상실현으로부터의 회피, 본래적으로 간직한 도덕성으로부터의 회피임을 논하였다. Ⅲ장 1절에서의 삶의충동이 정직한 그것이라면, Ⅲ장 2절에서의 삶의충동이란 삶의 엔트로피를 증진시키는 죽음으로 수렴하는 삶의충동이라 할 수 있겠다. Ⅲ장 논의의 귀결점은 바로 후자의 삶의충동, 즉 ‘회피로써의 삶’의 이상문학의 질료가 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한 데 있다. 본고가 이상의 소설문학하기와 시문학하기를 양분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의 문학하기는 이상의 소설문학과 보다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주장해 보았다.

IV장에서는 죽음충동과 이상의 문학하기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IV장 1절에서는 이상 문학의 핵심 주제인 자아상의 문제를 죽음충동과 관련하여 다시 천착해 보았다. 이상은 수필집의 몇몇 작품들에서 물 속, 그림 속, 꿈 속 등에 ‘비추어보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본고는 이러한 ‘비추어보기’가 죽음충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이는 시한부의 삶에 직면하여 현실태로서의 삶 너머에 잠재적 가능태로서의 삶을 상정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를 통해 이상의 플라톤적 세계관을 엿보았는바,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상이 그것이 ‘영원한 가설’로서 미답의 것일지라도 절대의 ‘참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음을 살폈다. IV장 2절에서는 죽음충동을 이상의 문학하기, 특별히 시 창작과 관련지어 보았다. 흔히 초현실주의적 모더니스트로 분류되는 이상의 문학에 지성과 반-지성이 겸비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를 논하면서 양자의 입장 모두가 과학을 매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상 문학을 통해 이를 일관된 경향성으로서 잡아낼 수 있었기에 ‘방법론적 문학하기’로서 명명하여 보았다. 우선, 지성적 입장에서의 글쓰기와 관련하여 ‘천문·지구적 상상’과 ‘수학적/과학적 지식의 적용’ 두 가지 항목을 살펴보았다. 후자는 기존 논문을 통해 들여다 본 것이기에 결론에서의 정리는 생략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인식 지평을 천문·지구적인 범주로까지 확대한 결과 그로부터 유발되는 실존의식 내지 죽음충동에 주목하였다. 그 밖에 이상의 시 및 소설 작품들을 통해 ‘천문·지구적 상상’이 지성적 글쓰기를 낳는 것임을 논하였다. 다음으로 반-지성적 입장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이상이 그의 수필집에 수록된 작품

들을 통해 지성뿐만 아니라 반-지성을 의도적으로 표방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과학의 판타지화를 이에 기초한 글쓰기의 양상인 것으로서 살폈다. 이는 의도적으로 과학의 논리성을 해체한 결과라 할 수 있기에 SF적 성격을 지닌, 마찬가지로 과학을 매제로 한 글쓰기라 할 수 있다. 주로 생물학적, 의학적 발상을 통해 이러한 판타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논하였으며 여기에서도 죽음충동을 엿보았다.

이 글이 수많은 기존 이상 연구와 구별되는 점은 다음 몇 가지에 있다고 하겠다. 이상 문학을 통해 죽음충동뿐만 아니라 삶의충동 양상에도 주목하여 양자가 길항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밝힌 점, 삶의충동이 단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논한 점, 삶의충동 및 죽음충동을 이상의 문학하기와 결부하여 작품론을 시도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수필을 중심으로 시 및 소설까지를 망라하여 이상 문학을 일관된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한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 상, 이승훈 엮음, 『詩-李箱문학전집 1』, 서울: 문학사상사, 1989.
 _____, 김윤식 엮음, 『小說-李箱문학전집 2』, 서울: 문학사상사, 1991.
 _____, 김윤식 엮음, 『隨筆-李箱문학전집 3』, 서울: 문학사상사, 1998.

* 이 글에서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수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血書三態」(21): 「早春點描」(35): 「病床以後」(55): 「슬픈 이야기」(61): 「幸福」(71): 「秋燈雜筆」(76): 「女像」(90): 「東京」(95): 「山村餘情」(103): 「어리석은 夕飯」(122): 「倦怠」(141): 「첫 번째 放浪」(155): 「十九世紀式」(182): 「最低樂園」(185): 「失樂園」(189): 「권두언」(16)(209): 「私信(1)」(215): 「私信(2)」(223): 「私信(3)」(225): 「私信(4)」(229): 「私信(5)」(231): 「私信(6)」(233): 「私信(7)」(234): 「私信(8)」(238): 「私信(9)」(241): 「私信(10)」(243): 「얼마 안되는 辨解」(289): 「무제(1)」(296): 「무제(2)」(299): 「구두」(302): 「哀夜—나는 한 賣春婦를 생각한다—」(305): 「猥의 記(作品 第二番)」(316): 「喀血의 아침」(326): 「공포의 기록(서장)」(330): 「공포의 城砦」(334): 「夜色」(339): 「무제(나)」(344).

**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시 작품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烏瞰圖 詩第七號」(1, 33): 「自像」(1, 94)〈수필집에 수록된 작품 「自畫像(習作)」(3, 193)을 논의하면서 함께 거론함〉: 「且8氏의 出發」(1, 178): 「習作소요원도우 數點」(1, 242).

2. 연구자료

〈단행본〉

- 권영민, 『이상 텍스트 연구: 이상을 다시 묻다』, 서울: 웅진씽크빅, 2009.
 김윤식, 『李箱 研究』, 서울: 문학사상사, 1988.
 _____, 『李箱 小說 研究』, 서울: 문학과비평사, 1988.
 _____, 『이상문학 텍스트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_____, 『기하학을 위해 죽은 이상의 글쓰기론』, 서울: 역락, 2010.
 김주현, 『이상 소설 연구』, 서울: 소명, 1999.
 _____, 『실험과 해체』, 파주: 지식산업사, 2014.

- 박현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사학』, 서울: 소명출판, 2003.
-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 역사시대의 종말과 제4세대 문명의 꿈』, 서울: 현암사, 2007.
- _____, 『이상 문학 연구: 불과 홍수의 달』, 서울: 지식과교양, 2013.
- 신범순 외, 『이상(李箱):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서울: 역락, 2006.
- Freud, Sigmund, 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서울: 열린책들, 1997.
- Heidegger, Martin,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1998.

〈논문〉

- 김은경, 「이상 소설 연구 - ‘천재’와 ‘탕아’의 형상을 중심으로」, 『比較文學』 54, 韓國比較文學會, 2011. 6.
- _____, 「李箱 詩에 나타난 主體 형상의 기호학적 분석 - 잉여/결여(▽△) 및 발산/수렴(凹凸)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6, 한국현대문학회, 2012. 4.

〈인터넷 자료〉

- 김용수, 『차크 라캉: 살림지식총서 340』, 2008, (주)살림출판사(NAVER 지식백과에서 2015년 8월 26일에 참고함).
- 박찬국,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숲길〉」,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고전강연)』, NAVER(2015.7. 25).
- 박찬부, 「프로이트 〈꿈의 해석〉,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고전강연)』, NAVER(2015. 7. 18), pp. 19-22.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국학자료원(NAVER 지식백과에서 2015년 8월 26일에 참고함).
- * 이 밖에도 “싸이폰 작용”, “SF” 등과 같은 용어들과 관련하여 NAVER 지식백과를 참조하였다.